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4월 12일 로건국제공항 터미널 E 대한항공 탑승게이트 E6에서 대한항공 직항 첫취항 기념식에서 주요 인사들이 승객들 탑승전 테이블을 자르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찰리 슈이 델타항공 뉴잉글랜드 영업이사, 에드 프레니 로건공항 항공디렉터, 정병섭 뉴욕지사장, 게이코 오렐 관광청장, 존 잭슨 대한항공부사장, 존 프랭크비셔스 매스포트 CEO, 김용현 보스톤총영사

첫 인천 직항 비행기 승객 264명, 랍스터 10톤

로건공항 탑승게이트E6서 12일 첫 취항 기념식 보스톤-인천 직항 이제 한인사회의 일상으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보스톤-인천을 바로 잇는 대한항공 하늘길이 4월 12일 열렸다. 대한항공과 델타 그리고 매사추세츠 항만청(Massport, 이하 매스포트)은 첫 인천 직

항 탑승을 앞둔 11시 30분 로건공항 대한항공 승객 탑승게이트 앞에서 취항기념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10시 24분 서울에서 탑승객 263명을 태우고 로건 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첫 취항 여객기에 대한 매스포트의 전통인 워터 설루트(Water Salute)를 받으며 로건공항 게이트로 진입했다.

대한항공 존 잭슨 부사장에 따르면 처음으로 보스톤 로건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직항하는 1시 25분발 대한항공은 이날 "승객 264명과 살아있는 랍스터 10톤"을 실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용현 >>3면으로 계속



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보상 나는 얼마나 받나?

크레딧카드 사용업주들
대부분 합의 통지문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이 비자및 마스터카드의 과도 수수료 부과 관련 집단소송 합의를 예비 승인함에 따라 한인 업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받는 한인 업체들은 이번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대부분이 지난주 또는 이번 주 이번 소송 합의 및 합의금 청구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한인업주들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받았던 업소들이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한인업체들은 반드시 합의금 지불을 청구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서울
직항항공권

항공권 \$1,198~

IACE TRAVEL
617.424.8956

NewsStar Real Estate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CENTURY 21
REALTOR®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보스톤마라톤, 2초차 막판 역전 드라마

체로노, 2차례 우승 베테랑 데시사 제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9년 보스톤마라톤 마라톤은 짜릿한 막판 역전승으로 귀결됐다. 지난해 같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종 2마일구간을 남겨두고도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이 혼전을 벌이다 케냐의 로렌스 체로노(Lawrence Cherono)가 2시간 7분 57초의 기록으로 2초차 막판 역전승을 일궈냈다.

체로노가 제압한 이디오피아의 엘리스 데시사(Lelisa Desisa)는 2013, 2015년 두차례나 보스톤마라톤을 우승하고 지난해 뉴욕마라톤을 우승한 베테랑이었다. 또 막판 선두그룹에서 달리던 같은 케냐 출신의 지오프리 키루이는 2017년 보스톤마라톤을 우승했던 베테랑이었다.

올해 마라톤은 지난해와 같은 폭우와 쌀쌀한 날씨가 아닌 포근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유키와와구치와 같은 이변보다는 아프리카 출신 국가 선수들이 압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됐었다. 지난 30여년간 보스톤마라톤은 거의 아프리카 선수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

선두그룹은 18마일(30킬로미터) 지점부터 형성됐다. 이날 레이스를 이끌었던 것은 미국 선수들이었다. 내틱에서는 엘카나키벳이 그리고 이후 지점에서는 제러드와드였다. 와드는 8위에 그쳤지만 경기 후 “자신이 1위와 겨우 2분 차이였다” 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햇브레이크 힐과 뉴튼을 지나 클리블랜드서클에 이르렀을 때 선두그룹은 다시 4명의 레이스로 좁혀졌다. 지오프리 키루이, 엘리스 데시사, 로렌스 체로노, 그리고 케네스 키프케모이 4명은 빠른 속도로 레이스를 이어갔다. 먼저 치고 나간 것은 키루이였다. 하지만 조금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페이스를 잃고 뒤로 쳐져 결국 5위를 차지했다.

데시사는 강력한 라이벌인 키루이가 뒤로 쳐지자 스피드 타임으로 여기고 최종 스피트를 시작했다. 그의 작전은 성공한 듯했다. 그러나 자신의 최고기록이 2시간 4분 6초였던 체로노는 그를 뇌주지 않고 따라 붙었으며 결국 서너 발자국 남겨놓고 데



4월 15일 패트리어초테에 개최된 보스톤마라톤에서 로렌스 체로노가 경기 막판 역전 스피트에 성공해 2초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123회 보스톤마라톤에 참가한 김두희(등번호2857, 60세)씨가 태극기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하트 표시를 하며 켈모어 스퀘어를 달리고 있다. 김두희 씨의 사랑해요 사인은 관중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Rank	Name	Country	Age	Time
1	Lawrence Cherono	Eldoret, Kenya	30	2:07:57
2	Lelisa Desisa	Ambo, Ethiopia	29	2:07:59
3	Kenneth Kipkemoi	Eldoret, Kenya	34	2:08:07
4	Felix Kandie	Iten, Kenya	32	2:08:54
5	Geoffrey Kirui	Keringet, Kenya	26	2:08:55
6	Philemon Rono	Kaptagat, Kenya	28	2:08:57
7	Scott Fauble	Flagstaff, Ariz.	27	2:09:09
8	Jared Ward	Mapleton, Utah	30	2:09:25
9	Festus Talam	Iten, Kenya	24	2:09:25
10	Benson Kipruto	Kapsabet, Kenya	28	2:09:53

시사를 제쳤다. 2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순간이었다. 데시사는 2013, 2015 우승 그리고 2016년, 2019년 2위 등 보

스톤마라톤에서 가장 화려한 기록을 가진 선수중의 하나가 됐다. 한편 여자부에서는 이디오피아의

워크네시 데게파(Worknesh Degefa)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019 보스톤마라톤 최종 기록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보스톤 마라톤에는 27,353명의 마라토너들과 60 휠체어, 46 핸드 사이클이 합킨톤을 출발했으며 보일스턴 스트리트 종료지점을 통과한 마라토너들은 26,632명이었고 휠체어 60, 핸드 사이클 45명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비교적 양호한 날씨였지만 높은 습도와 60대 중반의 따뜻한 날씨로 인해 2,095명이 의료진의 상담을 받았다. 이중 940명이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엘리트 선수 중에서도 11명이 치료를 받았고 77명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국인 중에서는 김택원(6760, 42) 씨가 가장 빨리 종료지점을 통과했다. 2위는 김재영 씨, 3위는 이병두 씨였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유키 가와구치(30)를 비롯해 4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해 상당한 기대를 걸었으나 히로토 이노우에(26)가 12위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유키는 15위로 끝이었다. 그러나 5명이 100위 안에 드는 등 마라톤 강국의 위상을 보였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인천 직항 한국과 보스톤 실제 거리 단축시켜"

▶▶1면에 이어서

보스톤총영사를 비롯해 매스포트 CEO 대행 존 프랭크비셔스(John Prankevicius), 델타 뉴잉글랜드 영업이사 찰리 슈이, 대한항공 책 존슨 부사장, 매사추세츠국제무역투자청(MOITT) 마크 설리번 청장, 매사추세츠 관광청(MOTT) 게이코 오랄(Keiko Orall) 청장 등이 참가했다.

에드 프레니(Ed Freni) 로건공항 항공디렉터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김용현 총영사는 "기쁘다. 이 첫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며 보스톤 한인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김총영사는 "한인사회와 한국정부를 대신해 대한항공의 첫 직항 공식취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총영사는 1883년 보빙사 방문과 첫 유학생 유길준의 잔류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의 방문으로 관계가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현재는 보스톤에 활성화된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대한항공의 직항이 두 국가의 실제적 거리를 단축시켰으니 풍부한 양국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마감했다.

매스포트 CEO 대행 존 프랭크비셔스 청장은 보스톤코리아와 인터뷰

에서 "우리는대한항공과 델타가 로건공항에서 매스포트와 파트너가 된 것이 기쁘다. 대한항공의 취항으로 우리는 세계와 매사추세츠의 연결이 한층 강화됐으며 이로 인해 이곳의 경제가 번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프랭크비셔스 청장은 "서울은 홍콩, 도쿄,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5번째 아시아 직항도시로 뉴잉글랜드 주민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지역 비즈니스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존 잭슨 대한항공 부사장은 "대한항공 직항은 단지 한국과 뉴잉글랜드를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천공항은 허브 공항으로 남동부 아시아의 25개 도시, 중국의 31개 도시, 그리고 15개의 일본 도시를 연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어포트 카운슬 인터내셔널(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은 인천공항을 지난 14년간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했다.

존 잭슨 부사장은 "보스톤-인천 직항은 이미 첫 3개월동안의 실적이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월등하다"며 서울 직항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editor@bostonkorea.com



대한 항공 직항 첫 보스톤 출발 인천행 비행기 기장과 승무원들



한국에서 첫출발해 12일 오전 10시 24분 로건공항에 착륙한 대한항공기에 로건공항의 전통인 워터 설루트(Water salute)를 하고 있다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AM - 11:00AM 3/16 - 5/25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11:30AM - 1:30PM 3/16 - 5/25
SAT II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II MATH IC	5:00PM - 7:00PM 3/16 - 5/25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8/5 - 8/23 Mon/Wed/Fri 4:00 PM - 6:00 P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14일 우편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열린 보스톤 한인회 40대 첫 이사회에서 장우석 회장이 이사회를 개회하고 있다

보스톤한인회 이사장 한선우 전회장

한인회 임원진 및 이사회 구성 완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인회가 40대 한인회 이사장으로 한선우 전 한인회장을 선출했다. 보스톤한인회 이사회는 첫 이사회를 4월 14일 우편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장우석 회장이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사장 후보로 한선우, 김병국, 이경해, 김동원 씨 4명이 추천됐다. 결국 4명의 후보들은 조정을 통해 한선우 전 회장을 단독후보로 추대했고 이사회는 한선우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한선우 이사장은 임원으로 김병국 부이사장, 이경해 감사를 선출했다. 또한 회칙 개정을 위해 김병국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정위원을 구성

키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한인회 임원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새로 구성된 한인회 임원은 사무총장 박찬모, 수석부회장 이재민, 부회장 서영애, 이상원, 이충현, 서부총괄팀장 서천, 문화홍보팀장 최해순, 기획재정 윤나 씨다. 이날 모임에는 40대 임원진과 이사회가 함께 모여 회의를 가졌다. 한선우 이사장은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출발하는 한인회인 만큼, 할일도 많지만 최 우선적으로 한인 사회에 한인회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인회 임원과 이사들이 최선을 다하자” 라고 임원진을 독려했다. 40대 한인회 임원진



한선우 전 보스톤 한인회장

한인회장 : 장우석, 사무총장: 박찬모, 수석부회장: 이재민, 부회장: 서영애, 이상원, 이충현, 서부총괄팀장: 서천, 문화홍보팀장: 최해순, 기획재정: 윤나
40대 한인회 이사회
이사장: 한선우, 부이사장: 김병국, 감사: 이경해,
이사: 김동원, 김우혁, 김현태, 장수인, 윤미자, 이강원, 윤철호, 이학재, 이현경, 장진섭, 조상연, 채명희
bostonkorean@hotmail.com



17일 열린 노인회 사랑방 모임에 참가한 회원들. 플로리다에서 참가한 유영심 회장님과 장우석 한인회장이 함께 했다


한인회 장우석회장 통닭 들고 노인회 간사연

유영심 전회장 난타로 사랑방 모임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장우석 한인회장이 치킨 75박스를 들고 노스앤도버 소재 위치한 다문화선교회에서 열린 4월 셋째주 사랑방 모임을 다시 찾았다. 장 회장은 4월 3일 북부보스톤교회로 옮겨 진행된 첫째주 사랑방 모임때 노인회원들에게 치킨 한 마리씩을 약속했고 17일 치킨 75마리를 가지고 다시 한미 노인회를 방문했다. 장 회장은 올스톤 하버드에비뉴에 위치한 비비큐치킨의 협찬을 받아 75마리 치킨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비비큐치킨은 아침 일찍부터 닭튀김을 요리했다고 노인회는 전했다. 노인회원들은 노인회 봉사부에서 만든 갈국수와 함께 치킨을 들기

도했으며 일부는 아이들을 위해 챙겨가기도 했다. 노인회원 상당수가 장 회장에게 한인회비를 전달했다. 장 회장은 “다시 한번 어르신들께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 말을 전했다. 이날 노인회 사랑방 모임에는 플로리다에서 방문한 유영심 전회장이 난타 강습을 이끌며 노인회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한미노인회 윤철호회장은 “오늘은 매우 흐뭇하다 오랜만에 유영심 전회장도 오셨고, 또 장우석 회장이 방문해 잔치 분위기여서 좋고, 회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한자민 높은 고국행문 의료서비스

휴람 특별기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신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이여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1 휴람 만 종합검진 (예약: 소요시간 30~40분 / 고려비용: 14만 3000원)**
1) 휴람 예약 안함: **10만원** (1차만 5만)
2) 휴람 고리피를 안함: **25만원** (1차만 10만)
3) 노안 수술: **299만원** (1차만 150만)
4) 다중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수술: **700만원**
- 2 노안 증는 노안성 백내장 수술 (1차만 + 후술비 별도)**
1) 노안교정 백내장: **299만원** (1차만 150만)
2) 다중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수술: **700만원**
-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특별**
150만원 (1차만 75만)
- 4 2030 라식/라섹**
130만원 (1차만 65만)

충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목이와 입두개
확실히 회복
불편했다면...

20~30대 때부터 목이와 입두개 불편을 느끼셨다면...
안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절과 눈꺼풀
사물대
불편한 경우

눈의 근육, 눈 주위 조직의 팽창으로 인해 눈꺼풀이 닫히지 않게 됩니다.

근구부다
노안이 빨리
올 경우

노안, 노안기, 노안후기...
노안기에는 노안 수술이 필요합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셨다면...

노안기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 노안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김수남 | 1-844-DOHIRAM (1-844-364-8728)
주소: 1000 Massachusetts Ave., Suite 1000, Boston, MA 02118
www.bostonkorean.com



제6회 H마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싱그러운 6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그리는 가족 축제 한마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가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미 동부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6월 개최한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6월 1일(우천시 6월 29일) 뉴저지에 위치한 오버팩카운티공원(Overpeck County park- Amphitheater: Ridgefield Park, NJ 07660)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그림 대회의 주제는 당일 현장 공지하며, 참가 접수는 Pre-K에서부터 6학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대회는 \$1,000 장학금 및 특별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 받게 될 대상(1명/전체)과 1등(1명/부문), 2등(3명/부문), 3등(4명/부문), 장

려상(58명/전체)을 포함한 수상자 총 75명에게 행운이 돌아가며, 총 \$5,000 상당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4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지역 H마트 전 매장내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NY 지역-맨하탄, 우드사이드 & MA 지역-캠브리지 매장 제외), 참가비 참가자당 \$20이며, 즉시 H마트 \$20상품권으로 교환된다. 행사 당일 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접수를 마쳐야 참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놀이 물품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등 많은 이벤트 또한 준비되어 있다. 또한 후원

업체인 해오름, 헬로휴, 농심, 삼양 등 메이저 식품 및 가전업체가 제공하는 무료 구디백 증정은 이번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H마트는 "지난 해 성황리에 마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올해도 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미적 감각을 마음껏 뽐낼 예술의 장으로 돌아왔다"며 "어린이 참가자들과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 되어 있으니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 전했다.

본 행사에 대한 문의는 H마트 고객센터 센터(TEL. 877-427-7386)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봄날의 햇살처럼 설레이는 전시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의 라이(Rye)에 위치한 수레 아트 갤러리 (SooRye Art Gallery)에서 봄날처럼 설레이는 예술작품 전시회가 개최됐다.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근 한달간 진행되는 전시회는 "봄날의 초청"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

한국작가 3명과 미국작가 3명을 초대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우수레 갤러리 관장은 "동서의 대조되는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라며 "참여작가의 각기 다른 스타일을 접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전시회" 라고 전했다.

페인팅, 일러스트, 드로잉, 민화, 에셋블 조각들이 어우러지는 전시회에는 유수레 화가의 독특한 에셋블 조각과 함께 조인선 작가의 한국적인 민화, 변순득 작가의 아프리카로부터 영감을 얻어 창작한 오일페인팅이 선보인다.

또한 뉴잉글랜드의 삶의 모습들을 담아낸 일러스트 작가 매디슨 세이퍼(Madison Safer), 섬세한 드로잉을 자랑하는 데이빗 크리스토퍼(David Christopher), 그리고 자연의 흐름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트레이시 헤이스(Tracey Hayes) 작가



의 작품들이 같이 선보인다.

물씬 풍기는 봄내음과 함께 다양한 작품을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전시회다. 13일 (토요일) 전시회 오픈식 때에는 바이올리니스트인 클라우디아 란델(Claudia Landell)의 연주가 작품 감상을 도울 예정이다.

전시기간: 2019년 4월 9일 ~ 4월 30일

오프닝 리셉션 4월 13일 토요일 4시~7시

전시장소: SooRyeArtGallery
11 Sagamore rd, Rye, NH 03870
운영시간: 화~금요일 10시~오후 5시

토요일: 11시~오후3시 (예약)
월요일, 일요일 휴관
www.sooryeartgallery.com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Seoul Seolryeong 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Seoul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오전10시~ 밤10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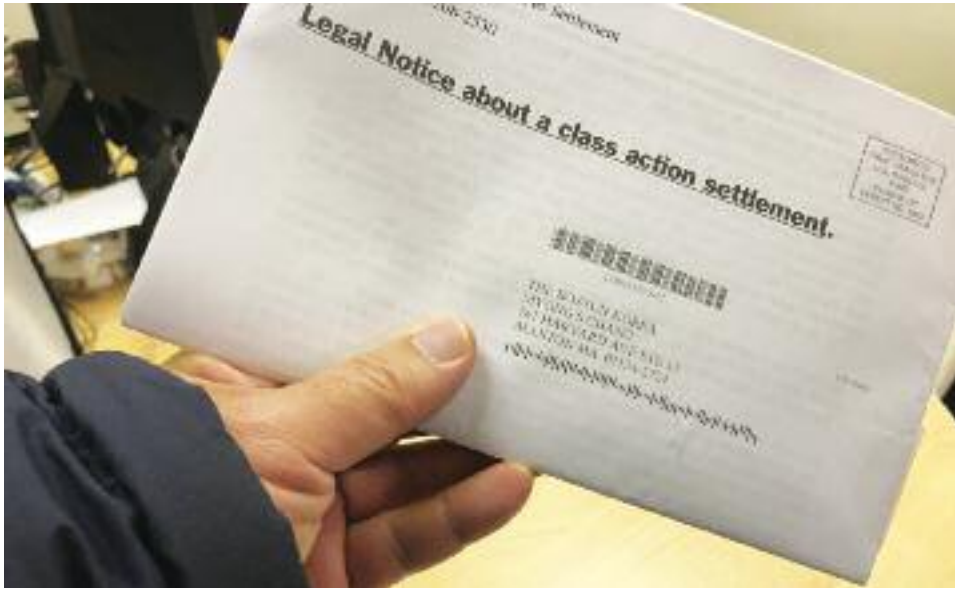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집단소송 담당관들은 2004년부터 비자-마스터 크레딧카드를 결제한 각 업체에 합의문 통지서를 보냈다. 사진은 보스톤코리아에 전달된 통지문

보상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 신청해야

▶▶1면에 이어서

(claim)해야 한다. 이번 통지서를 받은 한인업체들은 향후 청구 이메일 또는 편지를 받게 되며 이때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소송합의 통지를 받지 못한 한인들은 www.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추후 청구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자신의 업체를 제외하기를 원하는 경우 7월 23일까지 소송탈퇴(Opt out)신청을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송금액이 적다며 합의에 반대해 소송을 탈퇴한 대표적인 업체는 아마존, 월마트 등이다.

연방 뉴욕동부지방법이 예비 승인한 총 합의금 금액은 55억4천만달러에서 최대 62억4천만달러이다. 이번 소송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소송법 무법인 비용을 최종 합의 금액에서 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 그리고 BOA, JP체이스모건, 시티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뉴욕 동부지방법은 11월 7일에 최종 심리를 갖고 현재 예비 승인된 합의의 승인 여부를 판결한다.

이번 집단 소송은 1천2백만 소매업체들을 대표해 십여년 전에 크레딧카드 회사를 비롯한 은행들에 제기됐던 소송이다. 당시 비자 및 마스터 그리고 일부 은행들이 소매업주들에게 수수료를 지불케 하고 소비자들에게 다른 지불수단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소송 이유였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사 등은 2018년 9월 18일 62억달러 지급에 합의했으며 올해 1월 21일 뉴욕동부지방법은 이를 예비 승인했다. 비자와 마스터는 지난 2016년에도 합의에 도달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케이스를 받지 않아 무산됐었다. 당시 합의에 대해 항소법원은 일부 사업자들은 합의에 따른 보상을 아주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므로 합의가 불공정하다며 이를 파기했었다.

내 보상금의 액수는 얼마나?

집단소송 담당관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 기간 동안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카드 거래 정산 수수료의 총액 견적을 낸다. 담당관은 지급까지의 보유한 정보와 합의금 신청을 받아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산 수수료 액수를 산정하게 된다.

담당관은 향후 업체들이 청구 금액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코드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합의금 청구 양식에 덧붙여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청구 보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늦어도 2019년 6월 7일까지 게시될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부록 I에서 확인 가능하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세사모가 물속에서 숨겨진 무고한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진실규명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시낭송, 합창, 성명서 낭독 등으로 세월호참사 5주기를 기억했다.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메드포드에 위치한 보스톤한인감리교회에서 보스톤 세사모 지난 5년간의 기록도 살펴보고 다큐영화 Crossroads도 함께 봤다.

세사모 이금주 씨는 “참사 후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물속에 잠겨있고 참사의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며 조속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보스톤 세사모는 공간을 초월해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 1000인 합창에 함께 하기도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세사모는 공간을 초월해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1000인 합창에 함께 하기도 했다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메드포드에 위치한 보스톤한인감리교회에서 보스톤세사모 지난 5년간의 기록도 살펴보고 다큐영화 Crossroads도 함께 봤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매사추세츠 납세자 세무조사 얼마나 받나

납세자 세무조사 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세무조사 모순, 소수민족, 빈곤층 더 많아
흑인 소수민족, EITC혜택자 세무조사 확률 높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또는 뉴잉글랜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국 평균보다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지만 근로 소득세금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을 받는 한인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 프로 퍼블리카(Pro Publica)가 IRS 연구부에서 20여년이 넘게 수석경제학자로 재직했던 킴 블룸키스트의 최근 연구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미국 평균 세무조사는 1000명의 세금보고당 7.7건이었다. 이번 연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카운티 세금보고자료가 담긴 국세청 연간 데이터북(IRS Data Book)의 세무조사율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프로 퍼블리카가 제작한 지도는 카운티별로 세무조사율을 기록했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서퍽카운티와 듀크 카운티가 7.5건으로 가장 높았다. 햄프셔 카운티는 6.7건으로 가장 낮았다. 에섹스카운티와 노퍽카운티는 7.3, 플리머스와 우스터 카운티는 7.1 그리고 반스터블및브리스틀 카운티는 7건이었다.

뉴햄프셔, 버몬트 커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등도 미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EITC를 받는 중저소득층 한인들은 이 작은 확률에 포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특히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비용에 대한 충분한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 리퍼블리카가 제작한 지도에 따르면 지역적 세무조사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IRS는 미국 북부 지역에 비해 남부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훨씬 더 많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미시시피주에 있는 험프리스 카운티의 경우 1000명당 11.8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험프리스 카운티 지역 주민의 76%가 흑인이었다.

킴 블룸키스트 씨는 미국세청이 EITC를 받는 수혜자들을 극부유층들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납세자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EITC는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이다.

블룸키스트씨는 “당황스럽게도 왜곡된 논리지만, 험프리스 카운티에 대한 국세청의 과도한 세무조사는 가난한 납세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카운티의 절반 이상의 납세자들이 EITC를 신청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세청의 반응은 당연히 부인이다. 로버트 마빈 국세청 대변인은 인터넷 뉴스매체 패치와의 4월 초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저소득가정에 재정적



매사추세츠 납세자들은 미 평균 세무조사율보다 낮은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연구 결과 EITC를 받는 저소득층이 주요 세무조사 타겟이었음이 밝혀졌다

도움을 주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가장 탈세 가능성이 높은 세금보고를 세무조사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세무조사는 위기에 기초한 점수시스템을 사용해 배당된다. 모든 세금보고 중 탈세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판별하기 위해 점수와 여과장치 등이 적용된다. “선택과정에서 지역과 출신국가는 전혀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마빈 대변인은 주장했다.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는 것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탈세 위험성이 높은 것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점

수를 산정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조세회피처에서의 활동이다. 큰 액수의 자선기부, 홈오피스 디덕션, -많은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비용, 높은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이 점수를 높이는 요인이다.

위의 요소들로 인해 위험 점수가 높을 때 IRS는 다음 4가지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 고소득 고위험 납세자
가장 많은 세무조사를 받는 층. 고소득 납세자들은 아주 복잡한 세금보고를 하게 마련이다. 이 같은 납세자들은 조세 회피처, 트러스트 설립 및 관련 절세 방법 등을 사용한다. 일부 관련 행위들이 불법일 경우가 있어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2. 고소득 비세금보고자
고소득이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들.
3. 항목별 공제 금액이 많은 납세자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항목별 공제를 너무 많이 하는 납세자의 경우 실수와 사기가 많다고 판단한다.
4.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W-2를 받는 근로소득자와 다르다. 따라서 충분한 서류가 밀받침 되지 않는 비용처리는 세무조사의 원인이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수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NEBS)는 27차 연례학술대회를 5월 18일 토요일 보스턴 롱우드 소재 Harvard Medical School TMEC Walter Amphitheater에서 개최한다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연례 학술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NEBS)는 27차 연례학술대회를 5월 18일 토요일 보스턴 롱우드 소재 Harvard Medical School TMEC Walter Amphitheater에서 개최한다.

2019년 NEBS 27차 연례학술대회에서는 NHLBI의 제이 청(Jay H. Chung) 박사와 제노스코(Genosco) 고종성(Jong Sung Koh)박사가 생명과학 분야와 연관된 기조연설을 맡는다.

박지혜 36대 회장은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NEBS 연례 학술대회는 매년 약 200여명의 한인과학자가 참석하는 미 동부 지역 가장 크고 대표적인 한인 생명과학 행사” 라고 말하고 “뉴잉글랜드 지역의 생명과학 관련 한인 학생들과 과학자들의 학술교류 및 기타 유용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대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참가신청 및 기타 정보 확인은 학술대회 등록 사이트(<https://www.nebskorea.com/conference>)에서 할 수 있으며 4월 28일까지 신청할 경우 \$10로

2019 NEBS Annual Conference
Saturday, May 18th, 2019



Jay H. Chung, Ph.D., M.D.
Senior Investigator
NHLBI,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Jong Sung (John) Koh, Ph.D.
Chief Executive Officer
Genosco, Inc.

2019년 NEBS 27차 연례학술대회에서는 NHLBI의 제이 청(Jay H. Chung)박사와 제노스코(Genosco) 고종성(Jong Sung Koh)박사가 생명과학 분야와 연관된 기조연설을 맡는다

할인된 금액에 등록할 수 있다.

NEBS (<https://www.nebskorea.com>)는 미국 보스톤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신진 생명과학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는 비영리 학술단체다. 하버드, MIT, 예일, 터프스, 브라운, 보스턴, 유펜 등 유수의 대학들과 보스톤 지역에 위치한 20여 개의 생명과학 연구소와 바이오벤처 등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생명과학자 500여 명의 회원과 2,000명 이상의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은 박사급 연구원들로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생명과학, 의과학, 신약개발, 생체공학, 바이오이미징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있다.

NEBS는 개인 또는 기업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후원자 및 후원기업을 위해 연중 또는 학술대회 기간 동안 채용 설명회,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및 기업 후원 관련 사항은 박지혜 회장 (president@nebskorea.com)에게 문의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김예린 대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 주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랩을 직접 선보이는 등 끼를 발휘한 내수아한마음 한국학교 김예린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4월 6일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톤교회에서 개최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최유민 학생과 내수아한마음한국학교 김예린 학생 2명이 출전해 각자만의 장점으로 경쟁했다.

최유민 학생은 자신의 수영 경험과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원하는 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탄탄한 이야기 구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발표했다.

김예린 학생은 전혀 주목되지 않은 발표실력으로 관중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자신이 교회에서 발표했던 랩을 직접 들려주며 청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심사위원단은 두 학생의 뛰어난 발표에 상당한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좀더 많은 끼를 발휘한 김예린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예린 학생은 이현경 협의회 회장을 수상했고 최유민 학생은 윤미아 이사장을 수상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6일 북부보스톤교회에서 열린 나의꿈말하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예린 학생(사진 위쪽), 치열한 경쟁을 벌인 최유민 학생(사진 아래)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5월 1일부터 Tbo Plus 상품의 가격이 \$14.99에서 \$24.99로 인상됩니다.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서둘러 가입하세요!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S(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비록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글짓기 총영사상 최유민, 협회장상 이지윤

2019년 뉴잉글랜드 지역 글짓기 대회 86명 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설렁탕은 오랫동안 식히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밥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작문으로 심사위원을 감동시킨 최유민 학생(뉴잉글랜드한국학교, 10학년)이 뉴잉글랜드 지역 글짓기 대회에서 총영사상을 수상했다.

“내가 느끼는 것을 글씨로 표현하고, 이 넓은 세상과 함께 나눌거예요.”라며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이지윤(뉴잉글랜드한국학교 4학년) 학생은 한국학교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회장 이현경, 이하 협의회)가 4월 6일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톤교회에서 개최한 글짓기 대회에서 86명의 2세

들은 그동안 배운 한글실력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 놓았다.

몇가지 주제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 글짓기에서 학생들은 한글 실력과 창작력으로 수준높은 작품들을 만들었다.(전체 대상 및 각 학년 대상 작품 몇 10, 11, 12, 13편)

협의회는 올해도 대회와 시상식을 분리해 13일 렉싱턴에 위치한 성요한 교회에서 46명의 수상자(표 참조)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는 권성환 부총영사를 비롯한 협의회를 후원하는 단체장들이 참여해 시상했다.

이현경회장은 “매 주말마다 한국/한글 학교에서 배운 작문을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잘 표현하고 정리하여 고득점 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 각 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격려했다.

권성환 부총영사는 축사에서 “현지에서의 2세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협의회 임원과 각 학교 선생님의 희생과 봉사를 치하했다.

이회장은 “이번 대회에 협의회 소속의 15개의 학교 중 7학교만이 참석을 했고 학교별 학생 참여율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협의회는 올해도 대회와 시상식을 분리해 13일 렉싱턴에 위치한 성요한 교회에서 46명의 수상자(표 참조)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2019년 뉴잉글랜드 지역 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상	상 이름	수상자	학교
전체 대상	총영사상	최유민 (Yoomin Choi)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전체 대상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 회장상	이지윤 (Rose Lee)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Kinder 대상		조민수 (Minsoo Cho)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 등	1 등	노은하 (Sophia Noh)	로드아일랜드
2 등	2 등	한유주 (Yooju Han)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 등	3 등	김도연 (Doyeon Daniel Ki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 학년 대상		은윤기 (Yoonki Eun)	밀알 한국학교
1 등	1 등	허이레 (Yirae Huh)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 등	2 등	안현기 (Elizabeth Hyungie Ahn)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 등	3 등	정규진 (Gyujin Jung)	북부 보스톤
2 학년 대상		신혜원 (Olivia Shin)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 등	1 등	전지유 (Jiyoo Jeon)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 등	2 등	나연재 (Ava Yeonjae Ra)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 등	3 등	유하 스티즈 (Jeremiah Stearns)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 학년 대상		이아윤 (Ireem Lee)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 등	1 등	안효기 (Francesca Hyogie Ahn)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 등	2 등	오재인 (Jane Oh)/최서연 (Claire Choi)	뉴잉글랜드/내슈아 한마음
3 등	3 등	최서은 (Christine Choi)	성요한
4 학년 대상		류지완 (Jiwan Ryu)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 등	1 등	이가빈 (Gavin Lee)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 등	2 등	장주원 (Abby Zhang)	보스톤 한국 학교
3 등	3 등	유리 스티즈 (Joanna Stearns)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5 학년 대상		손운재 (Yunjae Son)	성요한
1 등	1 등	이세라 (Sara Lee)	내슈아 한마음
2 등	2 등	김다현 (Kristin Ki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 등	3 등	송연 (Esther Song)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6 학년 대상		이노아 (Noah Lee)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 등	1 등	백종우 (Jongwoo Baek)	천주교
2 등	2 등	최유나 (Yuna Choi)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 등	3 등	최서경 (Sally Choi)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7 학년 대상		서예린 (Erin Suh)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 등	1 등	최수영 (Sooyoung Choi)	내슈아 한마음
2 등	2 등	최유진 (Yoojin Choi)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 등	3 등	이샘 (Sam Lee)	내슈아 한마음
8 학년 대상		김효린 (Emily Kim)	내슈아 한마음
1 등	1 등	김수지 (Suzie Kim)/ 조한희 (Issac Cho)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 등	2 등	이재서 (Jaesuh B. Lee)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9 학년 대상		서가은 (Gaeun Suh)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0 학년 대상		최정완 (Jeong-Won Choi)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 등	1 등	최재경 (Jaekyung Choi)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 등	2 등	허은빈 (Eunbin Heo)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2019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1

[전체대상-1 (보스턴 총영사상)]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0학년

최유민



한국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설렁탕입니다. 설렁탕은 소의 뼈를 아주 오랫동안 끓여서 만들어집니다. 몇 시간씩 국물이 보글보글 끓여지면 새하얀 국물이 완성됩니다. 그 국물에 소고기와 파를 넣어주면 완벽한 설렁탕이 완성됩니다. 지금 상상만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추운 겨울 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 한 그릇보다 몸과 마음을 잘 녹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피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한 그릇 드시고 나면 “아, 시원하다!” 라고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 성분이 많아 운동하시는 분들과 편찮으신 분들에게 최고의 음식입니다. 없던 힘도 뻥뻥 번쩍 나기도 하죠.

보시다시피 설렁탕에는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제가 설렁탕을 좋아하는 이유 들은 아닙니다. 제가 설렁탕을 사랑하는 이유는 설렁탕을 먹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렁탕을 라면이나 김밥과 달리 빨리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몇 시간 밖에 못 보는 가족에게 같이 밥먹는 시간조차 짧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을 먹게 되면, 오랫동안 식히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밥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설렁탕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따뜻한 음식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사랑하는 사람들과 뜨끈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을 즐겨 드셔 보세요. 차가웠던 몸과 마음도 따뜻해 질겁니다.

[전체대상-2 (NAKS-NE협의회 회장상)]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4학년

이지윤



미래는 참 신비로운 것이예요. 행복하게 살 것인지, 슬프게 살 것인지, 부자로 살 것인지, 가난하게 살 것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것을 다 결정할 것은 바로 당신의 직업이예요. 의사, 요리사, 화가, 여러 가지이예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계속 읽으세요!

작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의 꿈이었어요. 감동받는 책을 쓰고, 웃기는 코믹도 쓸거예요. 하지만 작가가 되게 쉬운 게 아니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책을 최대한 많이 읽고 거의 매일 쓰기 연습을 해요. 또는 제가 시나 글을 써서 콘테스트에 나가요.

저는 많은 작가들을 존경해요. 제이 케이 롤링(J.K. Rowling), 투이 티 서더랜드(Tui.T. Sutherland), 그리고 찰스 디킨스(Charles Dick-

ens)가 모두 대단한 작가들이예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유명하고, 어메이징한 작가가 반드시 될 거예요.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는데, 그 인생을 살려면 꼭 작가가 되어야 해요. 내가 느끼는 것을 글씨로 표현하고, 이 넓은 세상과 함께 나눌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눈물이 흐르게 만들거예요. 제가 쓰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없게 만들거예요. 약속해요. 기대해 주세요. 곧 이지윤이 쓴 어마어마한 책이 나올거니까요.

의사, 요리사, 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는 제가 왜 작가가 되고 싶은지 알죠? 아차차, 까먹기 전에 말해야할게 있어요.

여러분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에요?

[K 대상] 엄마, 아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조민수



엄마랑 아빠는 잘 하는게 만아요. 우리 엄마는 똑똑해요. 우리 아빠는 게임을 잘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요리도 잘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만드는 걸 잘 해요. 엄마 아빠는 가끔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떨때는 엄마 아빠가 사이 좋아요. 엄마 아빠들은 이름이 있어요. 우리 엄마 이름은 이근영이예요. 우리 아빠 이름은 조진태예요. 저는 엄마랑 아빠가 좋아요. 엄마랑 아빠는 나를 좋아해요.

가끔씩 엄마랑 아빠는 내동생을 좋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우리들을 도와줘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때 엄마나 아빠가 우리를 도와줘요.

저는 엄마 아빠가 슈퍼히로 같아요. 왜냐하면...우리들에게 충치가 안 생길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탕을 못 먹어요. 저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멋져요.

[1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운동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허이레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테니스예요. 왜냐하면 누가 공을 던지면 라 으로 치니까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면 재미있어요. 공을 던져주는 사람이 라 으로 치면 더 재미있어요.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위로 치면 공이 하늘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이 날아갈데 우주선 같이 생겼어요.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공간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테니스 공이였으면 그네를 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테니스는 정말 재미있는 운동이예요. 나는 테니스가 있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테니스라 으로 공을 치고 공이 끝까지 올라가면 해처럼 보여요.

쟁쟁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 동생이 크면 같이 테니스를 치고 싶어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테니스는 항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일 거예요.

[2학년 대상] 생일파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전지유



제 생일은 1월 28일이예요.

제 생일이 겨울이라 밖에서 신나게 놀 수 없어요.

제 생일이면 걱정이 돼요.

“만약 친구들이 오면서 차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생일파티를 할때 생각하는게

“제 생일이 추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봄이나 여름이였으면 제 집 뒷마당에서 생일파티를 할 수 있을텐데” 라고 많이 생각해요.

조금 어렵지만 필적필적 신이 많이 나요!

제가 크면서 생일파티를 점점 못할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게 제

일 중요해요.

아빠는 생일파티를 하진 않지만 칸쿤에서 재미있게 가족파티를 해요.

엄마는 생일에 조그만 생일파티를 해요.

춧불도 붙어요.

우리 집에는 ‘나무’ 라는 개가 있는데 나무는 생일파티를 엄청 즐겨요.

아세요?

왜냐하면 나무가 제일 좋아하는 트릿을 생일파티가 끝난 다음 맛있고 즐기면서 먹습니다.

생일파티 생일파티 너무너무재밌고 신나.

생일파티에서 케이크와 맛있는 피자를 먹어요.

다음에도 재밌는 생일파티였으면 좋겠어요.

[3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운동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안효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입니다.

빨리 뛰고, 공을 막고, 세계 차요. 승!

저는 근데 또 축구가 싫어요.

첫 번째 저는 공을 무서워해요.

두 번째 골리를 하기 싫어요.

축구는 또 아주 좋은 운동이예요.

저는 축구를 다하고 나면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축구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또 아이스 스케이팅을 좋아해요.

저는 아이스 스케이팅을 축구처럼 안 배우지만 그래도 아주 좋아해요.

저는 아이스 스케이트를 혼자 배웠어요.

처음에는 아주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티끌 모아 태산 같이 계속하니 조금씩 조금씩 안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스 스케이팅을 할 때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으로 살랑살랑 머리카락을 흔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아주 자유롭게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넘어지면서 배워요.

저는 운동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경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운동은 아주 몸에 중요해요.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앞으로 운동을 할거예요.

앞으로 운동을 하자, 아보!

[4학년 대상]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기빈



제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은 만화가입니다. 제가 왜 만화가를 하고 싶냐면, 저는 많은 사람

들이 제 책을 보고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만화책 ▶▶11면으로 계속



2019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2

▶▶ 10면에 이어서

을 읽었을 때, 너무 웃었습니다. 저는 곰곰히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커서 만화가가 되면 사람들이 이 만화책처럼 웃어줄까? 그래서 저는 장래 희망을 만화가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학년 때부터 만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제 만화를 보여준 적은 없지만, 저는 만화가가 되게 꿈입니다. 저는 일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일란과 친구를 한지 2년 됐습니다. 저는 2학년때부터 일란이랑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4학년 때 이사해서 일란이랑 자주 만화도 못 만듭니다. 저는 일란이랑 자주 만나지도, 만화도 못 만들어서 저 혼자라도 만화를 만들어야 된다

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꾸준히 만화를 만들고 제 친구 일란에 대한 만화도 만들어왔어요.

어느 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만화들이 없어졌어요! 저는 엄마한테 만화 어디있냐고 여쭙어 보았는데 엄마가 버렸대요! 저는 울쌍을 지으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로 제 머리 속에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잊어버릴까봐 프린트 해는 엑스트라가 있었어요!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만화를 썼어요. 저는 친구 일란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꿈이 있어요. 제 친구 일란을 위해서 만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5학년 대상] 짹짹한 간장 계란밥

내슈아 한마음한국학교 이세라



짹짹 하면서 론 부드럽다. 바삭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 계란밥입니다!! 비록 계란밥이 한국 전통음식은 아니어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즐기는 음식입니다. 계란밥은 아침, 점심등 아무나 간단히 만들수 있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계란밥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으로 음식을 만든 뿌듯함과 항상 음식을 만드는 제 주변 사람들이게도 제가 감사할

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년전, 아빠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엄마는 두통때문에 아파서 자고 있었을때 오빠와 저는 엄마가 배고플거라고 생각하고 계란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꽤 순조롭게 시작했지만, 오빠가 간을 정확하게 한다고 큰술을 치면서 소금 한 통을 거의 다 계란밥에 부어 버린 것입니다. 당황한 저는 오빠를 짜려봤습니다. 어쩔수 없이 오빠와 저는 엄청 1000잔 계란밥을 엄마에게

전달 했습니다. 비록 맛은 없어도 제가 열심히 “혼자서” 음식을 만든 뿌듯함이 가지지 않았습니 다.제가 감사하게 느낀 점은 아주아주 많지만 그중에서 제 탑 랭크에 들어갈 정도로 기억에 남는 추억은 계란밥과 함께 엮였습니다. 제가 2, 3살때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도착한 몇일후에 할머니는 할머니표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상상해도 떠오르는 맛이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먹여 주실때 입안에서 계란과 밥에 환상적인 조화가 너무 너무 너무 맛있어서 입안이 춤을 쳤습니다. 2년후, 다시 한국을 갔을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모와 함께 정말 많은 맛집을 갔었습니다. 제가 정말 밥을 먹을 때마다 거의 항상 제 머리 속으로 생각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할머니의 간장 계란밥이였습니다. 매일 계란밥을 만끽했을때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소 싶어도 죽어도 못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계란밥을 자주 먹으면서 생활 하지만 다른 음식을 먹을때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지시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명절 - 설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최유나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명절이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명절은 설날이예요. 설날에는 우리 엄마가 저를 엄청 일찍 깨워요.

우리 엄마가, “일어나, 떡국 즐겨!” 라고 하시면 저는 벌떡 일어나요. “떡국은 있다가 먹자, 얼른 따뜻한 옷을 갈아입어, 나가야지!”

우리는 바다 근처에 간 뒤, 해가 뜨는 모습을 보아요. 올해도 물론 갔다 왔지요. 우리는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부는데도 7시까지 서서 기다려요. 해는 눈 깜짝하듯이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떠오. 노란해 주변에는 주황, 빨강, 그리고 분홍으로 섞여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어요. 해가 너무 빨리 뜨기 때문에 하나는 하늘이 주황색으로 찍히고, 또 하나는 분홍색으로 찍혀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면 한 8시 30분에서 9시쯤 돼요. 엄마는 설날 특집 드라마를 보려고 텔레비전을 키죠. 저는 떡국을 달라고 보치면 엄마가 김이 훤히 나는 따끈따끈한 떡국을 솥에서 한 그릇을 크게 퍼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것도 못 먹었기 때문에 입이 심심하면 국물을 쪽 들이마셔요.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12면으로 계속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직원 모집

LSG Sky Chefs 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LSG Sky Chefs는 Lufthansa AG의 자회사로 기내식 및 기내 서비스를 공급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본 회사에서는 **Asian cuisine** 특히 **스시와 한국음식에 경험이 있는 주방장과 요리사를 모집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하며 영어로 읽기와 대화가 가능 하여야 합니다.

채용되시는 분은 Full time, permanent position with full benefits과 free parking의 혜택을 받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영문 이력서를 **BOS1379.HR@lsgskycheffs.com**으로 보내주세요.



2019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3

▶▶12면에 이어서

먹는다는게 너무 좋아요. “엄마, 나 오늘 한살 더 먹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른이 되면 알겠지만 한살 더 먹는 것은 그다 좋지 않다고 해요. “젊은게 좋지, 나이 먹는게 어떻게 좋냐?” 하지만 저는 아직 몰라요. 제 생각에는 생일이 아닌데도 한살을 더 미리 먹는게 너무 신기하고 자랑스러워요. 제 외국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요. 맛있는 떡국에다가 김치를 올려 먹는 동안에 보는 설날 특집 드라마는 되

게 재미있어요. 웃기면 떡국 먹다 말고 깔깔거리며 배꼽 잡고 웃어요. 그 한 그릇을 다 먹고나면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먹은게 다 소화되면 집에 있는 제기를 갖고 놀아요. 우리 엄마는 제기차기를 엄청 잘해요. 흘러 도하고 그냥 추억을 쌓으면서 놀아요.

저와 우리 가족은 설날을 이렇게 보내요. 한국 명절 중에 제일 여유있고 재미있는 명절인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로 저는 설날이 좋아요.

[7학년 대상] 감동을 받게 만드는 책/영화 'Wonder'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최유진



제가 'Wonder' 라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본 다음에, 눈물이 나올만큼 감동을 받았어요. 'Wonder' 의 내용은, 어린 남자 'Auggie' 가 있는데 얼굴이 달라서 다른 아이들이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아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5학년이었을때 저도 다른 아이들보다 달라서 많이 놀리고 슬프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Auggie' 의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힘을 가졌고 그 못된 아이들 신경을 꺾어요.

도 이런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제 문제들을 제 엄마, 아빠와 오빠한테 숨기고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어느 시간에는 왜 제가 태어났는지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췌편이었어요. 그 못된 아이들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Auggie' 가 그냥 책과 영화 주인공이 아니에요. 'Auggie' 는 사람들이 보고 자랑스럽게 만들수 있는 사람이에요. Auggie 같은 아이들이 괴롭힘을 빠져나가고 행복하게 친구들과 살수 있어요.

그런데, 'Auggie' 의 친구들도 깜빡하면 안되겠죠? 'Auggie' 의 친구들은 'Auggie' 를 보고서 도와줬고, 놀아주고, 친한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면 여러분도 슬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다르던, 아니면 '이상하던' 절대로 못살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싫어하며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어요.

어느 사람들은 이런 괴롭힘을 잘못 받고, 어느 시간에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제가 이런 것을 알까요? 왜냐하면 저

[8학년 공동 대상] 친환경을 위한 내 생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수지



드림 케이터링 DREAM CATERING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한식 및 중식
지금 경험하세요!



MR SUSHI, TD GARDEN 보스턴 셀틱스 VIP룸 일식, 신신마트, SUSHI YA 등에서 일하시는 20년 이상의 파트별 전문 요리사들이 일식, 한식, 중식을 예산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서, 현재 보스턴 커플리에 위치한 THE COLONNADE BOSTON HOTEL을 비롯하여 HARVARD CLUB, WINCHESTER COUNTRY CLUB 외에도 소규모 회사파티, 학교, 학원, 각종 한인들 단체모임에 2001년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781.308.2073(줄리 안)

친환경이라면 저는 예쁜 꽃들이랑 건강한 바람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실화이며,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도 너무 잘 아는 미세 먼지 때문입니다.

몰려 오는 미세 먼지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은 힘들어 하고 몸에 안 좋은 더러운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마스크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허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못 받아드립니다. 계속 아니라고 싸우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 오염을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한 한국을 위해서 환경오염 법이랑 공기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힘들겠죠?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떤 사람들은 크고 돈도 많고 힘이 있어서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저의 사랑스러운 나라랑, 사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 저의 사랑스러운 가족이랑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 한국인들의 건강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법들이랑 방법들을 얘기하겠습니다.

[8학년 공동 대상] 친환경을 위한 내 생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조한희



친 환경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막 안 버리고, 나무를 아껴 쓰고,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종이를 아껴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는 나무에서 만들고, 너무 많이 쓰면 나무들이 더 죽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안 아껴 쓰면 쓰레기도 더 생깁니다. 그러면 환경이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집니다. 이것만 해도 환경이 친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막 버리면 동물들이 먹고 목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들이 삶에 필요하니까 물건 만들기를 없애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그 많은 미세 먼지가 더 많이 생기는게 아니라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곳에 공기청정기를 밖에 놔두고 나쁜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만들어 밖에 공기도 건강한 공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는데 싫습니다. 사촌들이랑 삼촌들이랑 연락하면 늘 마스크를 쓰면서 기침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환경오염을 하면서 인정도 안 하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슬프고 몸 아파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궁금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허나 이 싸움에 저는 힘센,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을 믿습니다. 친환경을 위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힘을 합하면 더 건강한 친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더러워지고 죽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쉽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넣고 잘 버리면 바다에 안 있고 더 깨끗한 지구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차를 많이 안 타는 것' 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마다 공기에 다 나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가 나빠지고 숨을 쉴 때마다 그 나쁜 공기가 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그 나쁜 공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되고 더 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13면으로 계속



SINCE 1987
MR. SUSHI
ARLINGTON





2019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4

▶▶ 13면에 이어서

[9학년 대상] 한국이 자랑스러울 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서기은



‘한국’, 여러분은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뉴스에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가끔 제 정체성을 바꾸고 싶을 때 “무슨 나라의 국민이 되었으면 제일 좋았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항상 한국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한국이 ‘가끔씩’ 너무나 자랑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제 반에 한국인들이 되게 드물었어요. 한국인들은 커녕, 동쪽 아시아 사람들도 드물 때가 많았어요. 제 이름을 똑바로 말할 수 있는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주변에 자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수줍음으로 제 몸이 채워졌고 집에서 한국 음식을 저의 어머니께서 싸준다고 말할 때는 항상 질색했어요. 제가 살았던 옛 동네에는 전 학교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 두 명 밖에 없어서 항상 제 정체성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 가족이랑 한국말을 쓰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맛있는 한국 음식만 먹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Lexington, MA로 이사왔습니다. 이 동네에는 한국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제 주변에 K-POP을 사랑하는 여자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 중국인 친구들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POP에 제 인생을 바치지 않는 데 저도 가끔씩 들어보면 제 머릿속에 어떤 멜로디 같은 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BTS 노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 뿌듯하고 기쁠 때가 꽤 많습니다. 제 중국어 반에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저한테 ‘한국을 꼭 가보고 싶다.’ 고 저에게 말할 때 저도 모르게 활

짝 웃었어요. BTS 때문이라고 말했는데도 한국의 훌륭한 걸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유튜브에 Ellen 쇼가 편집되어서 올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BTS 멤버들이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말이 서툴러서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약간은 걱정을 했었는데, 한 멤버가 말할 때마다 뒤에 앉아 있는 팬들이 기뻐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한국의 열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에서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UN 협회에서 BTS 멤버의 스피치를 낭독한 글을 나눠줬을 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UN에 간 것 만도 너무 뿌듯했는데 그의 스피치를 읽고 감동을 더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더 잘하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보고 배우고 따릅니다. 그런데 제 학교에 콘서트 대회에서 한국인 여자 학생이 이기는 것을 봤을 때 바이올린을 키는 저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희망이 생겨서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제가 연습하는 곡들을 찾아보면 항상 한국인들의 녹화된 연주들을 들어볼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과 비슷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직 하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너무나 뿌듯 합니다. 한국은 하나하나를 열심히 한다는 게 이 세상에 퍼져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는 않고 사랑하게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 라고 같이 외쳐 줄 수 있을 만큼 한국사람들과 한국의 문화가 자랑스럽습니다.

[10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최정완



한날 한국의 더운 날이었어요. 가족이랑 서 울거리를 걸어가면서 느낌이 더워지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씩 가면서 햇빛이 쨍쨍 내렸는데, 어디 차가운데가 없었어요. 제가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난리를 쳤어요.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 걸어가야 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가 빨리 답을 줬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서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죠.

하지만, 걸음은 그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계속 걸으면서 음식 먹는 생각이 화난 마음으로 점점 바뀌고 있었어요. ‘어떤 한국 음식이 갈래’ 생각이 났어요. 이런 날씨에 삼십분 넘는 동안 가 먹어야 할 음식이 있나?

이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 한국 음식이 맛이 없으면 걸어가 이유가 없어지잖아.’ 이 질문들은 부모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엄마의 대답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먹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렇게 멀리 걸어가까?”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으면서 부모님을 따라 걸어갔어요.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이 멈춰서요. 핸드폰을 보면서 이 음식점이 맞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저는 답답한 마음이 좀 나아지고 있었어요. 음식점을 살펴보니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작은, 유명하지 않은 음식점을 한 시간 동안 걸어온 거야?”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좋은 음식점도 못 찾습니까?” 부모님이 “그냥 들어와.” 라고 말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엄마 아빠 따라 음식점 안에 들

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에 AC가 찬바람을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에 걸어가면서 자리로 갔어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왔어요. “주문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지금 시키실래요?” 아빠가 좀 있다가 한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메뉴를 보니 많은 종류의 한국 음식이 있었어요. 라면, 삼겹살, 김치찌개, 순대, 한국 음식이 눈에 보였어요. 순두부찌개, 부모님한테 이것을 먹고 싶다고 말해서 그거를 시켰어요.

순두부 기다리는 시간이 일년 동안 기다리는 느낌이 났어요. 그때에 제가 빨간, 냄새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아주머니가 찌개를 내리고 마음에 기다릴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숟가락을 안에 넣어서 보니 순두부와 국 그리고 돼지고기까지 있었어요. 입안에 넣어서 먹고 나서 기쁨이 속났어요. 두부가 너무 부드럽고, 국은 맛게 간도 잘됐고, 고기는 동화 안에만 나오는 맛이 났어요. 순두부를 먹으면서 웃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백일 동안 걸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 먹고 나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음식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요.

음식점 나오고 이상하게 날씨가 더 좋게 느껴졌어요. 더운 날이 이제 좋은 날씨가 될 거 같았어요. 가족이 할아버지 택시로 걸어가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내일도 다시 와서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아빠가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잖아. 더 가까운데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만 가고 싶어요.”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ee@mwl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DRAIN & PLUMBING

확

막힌 곳을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주문하지 않은 대형 TV 받은 남성

절도죄 적용되어 경찰에 체포,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항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주문하지도 않은 고가의 물건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대형 텔레비전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스트프리티타운에 거주하는 닉 메모(35세)는 어느 날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86인치 텔레비전을 받았다. 이 텔레비전의 가격은 약 2,700달러다.

텔레비전을 받은 메모는 "즉석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았다"며 "내 인생에 이렇게 운이 좋은 날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들이 메모의 집을 포위하고 메모는 체포되었다. 메모에게는 절도죄가 적용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메모의 주장은 간단하다. 자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메모는 아마존에서 1,200달러를 주고 75인치 텔레비전을 구입했다. 그러나 배달 회사의 실수로 지난 3월 1일, 메모의 집에 2대의 텔레비전이 배달 되었

다. 하나는 실제로 메모가 주문한 텔레비전, 다른 하나는 메모가 주문하지 않은 86인치 텔레비전이었다.

메모는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텔레비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찾아보았다. 연방 통상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메모는 "당신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받았을 때, 당신은 이 물건을 무료 선물로 여겨 가지고 있을 법적 권리가 있다"는 구절을 발견하였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메모는 정당하게 86인치 텔레비전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 통상위원회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일부 회사에서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일종의 사기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 놓은 조항이다.

메모는 연방 통상위원회의 내용을 믿고 주저 없이 텔레비전을 거실에 설치하였다. 왜냐하면 메모는 "나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문하지 않은 텔레비전을 받아 체포된 닉 메모는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물건을 잘못 배달한 배달 회사는 수 차례 메모에게 전화를 했고, 메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다고 여겼다. 이스트 타운 경찰은 영장을 발부 받아 메모를 체포했다.

체포되지 몇 시간 만에 풀려난 메모는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메모의 사건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리콜을 하게 된 벤앤제리의 아이스크림 2종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2종 리콜

견과류 함유 표시 안 되어 있어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버몬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벤앤제리(Ben & Jerry's)가 2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에 대해 리콜을 하게 되었다. 견과류와 관련한 문제 때문이다.

리콜을 해야 하는 벤앤제리의 아이스크림은 핀트 사이즈 코코넛 세븐레이어 바(Coconut Seven Layer Bar)와 청키 멍키(Chunky Monkey) 아이스크림이다. 이 아이스크림은 아몬드, 브라질넛, 헤이즐넛 등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이스크림 겉면의 성분 표시에는 이런 견과류가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적혀 있지 않다.

벤앤제리 아이스크림에 리콜 명령을 내린 연방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견과류는 섭취할 경우 알러지 때문에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 알러지 반응 때문에 목숨을 위협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벤앤제리의 코코넛 세븐레이어 바나 청키 멍키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때 견과류와 관

련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대상인 벤앤제리의 코코넛 세븐레이어 바는 유통기한이 SEP1520BJ4이라고 적혀 있고, 소비자 바코드는 076840104246이다.

리콜된 청키 멍키는 유통기한이 AUG2820BH2, AUG2920BH2, 또는 AUG3020BH2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이며 소비자 바코드는 076840104246이다.

두 제품 모두 미국 전역으로 공급되었다. 만약 리콜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고 833-236-1237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청은 아직까지 벤앤제리의 리콜 아이스크림을 먹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픈 사람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벤앤제리는 리콜 아이스크림은 제조 과정에서 재료 공급 회사의 실수로 견과류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벤앤제리는 리콜 대상 아이스크림을 전량 회수 중이다.

jsi@bostonkorea.com

부활절 주말 음주 운전 단속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경찰이 부활절 주말 동안 보스톤 서부 지역에서 검문소를 세우고 음주 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부활절 기간 동안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한인들은 미리 참고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음주 운전 검문소는 금요일(4월 19일)

) 밤부터 일요일(4월 21일) 새벽 사이에 설치될 예정이다. 스프링필드가 속해 있는 햄턴 카운티(Hampden County) 어딘가에 검문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주 경찰은 밝혔으나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문소는 음주 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지도 단속하게 된다. 또한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운전자들의 불편과 걱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주 경찰은 음주 운전 단속 계획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인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시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닥터홍 메드스파안웰니스 MeelN Skin Health and Wellness

**보스톤 최초 한인 스킨 앤 바디 클리닉
피부 젊음 가까워졌습니다**

- 보톡스, 디스포트
- 하이드로 페이스 MD3 시스템
- 더마 필러(Dermal Fillers) : 레슬린, 주비덤
-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PRP(Platelet Rich Plasma) : 스템셀 스킨 성장인자 치료법
- BTL Exilis Ultra : 레이저 스킨 & 바디케어
- 뉴트리션 테라피 : 비타민, 미네랄 영양 정맥주사 요법
- 체중조절 및 탈모 복원 시술



예약문의: Meeinskinhealthwellness.com, 617.202.6261, 855.208.2806
46 Austin street #301, Newton, MA 02460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대통령기록관·경찰청·서초서 압수수색...김학의 청외압 강제수사

이관된 차정부 청와대 민정실 생산 문건 확인 당시 수사경찰-靑민정라인 공방 관련 기록확보 위해

(서울=뉴스1) 서미선, 손인해, 이유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수사단이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서울 서초경찰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013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과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과거 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날(17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

국, 서초구 서초경찰서 형사과와 정보과에도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있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 중이다. 경찰청과 서초서에선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뇌물공여자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서초서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사건의 발단이 된 2012년 말 건설업자 윤중천씨 부부와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의 간통·성폭행 맞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첩보를 입수한 경위와 이후 수사 과정, 청와대 보

고 시점과 방법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보고시점 등을 두고 당시 수사경찰과 청와대 민정라인 간엔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청와대 측과 경찰 측이 내사사실을 보고했는지, 동영상 확보 관련 거짓말을 했는지, 관련 보고는 언제 했는지에 대해 서로 말이 맞지 않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질책한 게 문제가 되고 (수사가) 권고된 거라 동영상 확보 시점, 청와대 보고 시점이 차관 내정 전인지 등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초서의 경우 권씨 고소로 처음 이 사건에 대한 동영상 첩보 등을 가장 먼저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경찰 내부 보고 여부를 보려고 같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강제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서초서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근무자 명단제출 등을 요청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단서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및 윤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서버에 보관 중인 당시 담당자들 이메일도 압수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관련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광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민정수석 비서관)과 이종희 변호사(당시 민정비서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단은 광 의원과 이 변호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smith@news1.kr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내일 영장심사

(서울=뉴스1) 이유지,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뇌물 공여자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밤 9시40분쯤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기,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윤씨가 현재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윤씨가 진술했다며 권고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는 당시 검사와 면담을 할 때 인정했다가, 기록을 남기려 하자 부인하며 입을 열지 않는 등 태도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이후 윤씨 주변인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윤씨

개인비리를 다수 포착해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윤씨는 지난해까지 한 중소건설업체 D도시 개발 대표를 지내며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회사 돈 최소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따내겠다고 2억원대 주식을 받은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낸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계획이 무산된 후에는 투자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은 정황도 검찰은 들

여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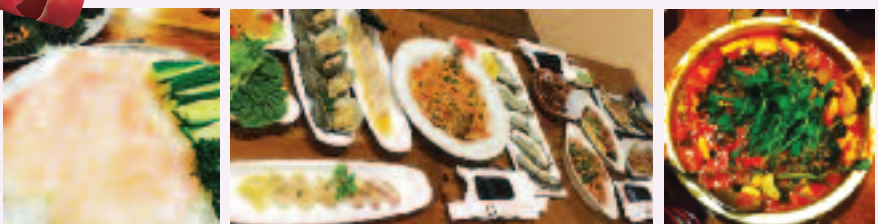
과거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사업가에게 사건을 무마하는 등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협박한 내용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관련 사건'으로 윤씨가 관련한 사업 등 관련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별건 개인비리를 파헤치면서, 수사본류인 윤씨와 김 전 차관 간에 오갔다는 뇌물 단서와 빼돌린 돈 등으로 사건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moon@news1.kr

엘프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연말 연시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5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 \$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머묵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롤 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APR. 19th - APR. 25th, 2019

EASTER GREEN TEA BAKED DONUT

EASTER EGGS ARE FOUND ON THE TASTIEST GRASS!
SOFT AND LIGHT GREEN TEA DONUT COMPLETES YOUR CELEBRATION!

H마트에서 공개하는 부드럽고 달콤한 부활절 구운 녹차도넛! 초록색 잔디 위에 부활절 달걀이 올라가 있는 듯한 귀여운 모양의 도넛을 H마트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Let the spring celebrations begin!

Gather family & friends around the dinner table!
H마트와 함께 풍성한 부활절을 즐기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coop location for you! 동수업으로 성공할만큼 투자한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CONTACT: med@hmart.com



<p>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4.99</p>	<p>Korean 3Pack Singo Pear 한국산 3팩 신고배 \$7.99</p>	<p>Red Seedless Grape 씨없는 적포도 \$1.79</p>	<p>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미디엄 \$1.79</p>	<p>Chestnut 밤 \$2.99</p>
---	---	---	--	---

<p>Small Chestnut 두종밤 \$4.99</p>	<p>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79</p>	<p>Ginger 생강 \$1.79</p>	<p>Packed Garlic 팩마늘 5oz/1pkgs. 2\$3</p>	<p>K TOWN Tofu 케이타운 두부 Soft/Silk Firm 12-16oz/1pkgs. \$0.99</p>
---	--	--	---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Beef Tenderloin (Whole Piece) 소 안심 \$7.99</p>	<p>Bone-in Beef Hindshank 뼈 있는 아롱사태 \$4.99</p>	<p>Headless Tiger Shrimp 머리없는 타이거 새우 \$9.99</p>	<p>Unagi Kabayaki 우나기 11oz./pkg. \$17.99</p>
<p>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고기 \$4.99</p>	<p>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돼지 생육살 \$4.99</p>	<p>Headless White Shrimp 26-30's 머리없는 흰새우 \$6.99</p>	<p>Headless & Gutted Banga Mary Fish 손질 민어 \$3.99</p>
<p>Boneless Chicken Breast 뼈 없는 닭가슴살 \$1.99</p>	<p>Marinat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돼지 목살 스테이크 \$4.99</p>	<p>Chilean Sea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19.99</p>	<p>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6.99</p>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미아일 15lb/ct. \$9.99</p>	<p>HAIKREMA Yellow Croaker 황금돔 굴비 2.5lb. \$12.99</p>	<p>BEYOND THE OCEAN Frozen Small Octopus 바다너머 상상낙지 1.5lb. \$9.99</p>	<p>AJI-MOMOTO Don't Stop Noodles 마지못하고 달걀 All Varieties - 3.0oz. \$2.99</p>	<p>PALDO Bihun Mien Oriental Style Noodle 밀도 비빔면 4.5oz. x 3ea./1pkgs. \$3.99</p>	<p>SAMLIP Frozen Udon 상한면 냉면 4oz. x 2ea./1pkgs. \$2.99</p>	<p>HAID REUM Korean Style Noodles 해오름 마국수 5 lbs. \$4.99</p>	<p>HAID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고기 양념 16oz./1pkgs. \$3.99</p>	<p>MIZKAN Ojigutsu Tsuyu Soup Base 미즈칸 우동소스 16oz. \$3.99</p>
---	---	---	--	---	---	--	---	---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2019. 6. 1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우선시 명사는 2019. 6. 29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명사에게 접수하여 Email로 제공받으세요.
장소 Overpeck County Park Amphitheater (Wedgefield Park, NJ 07060)
접수기간 2019년 4월 12일(금) - 2019년 5월 26일(일)까지 접수

만화
한국인 예술가들도 만화계에서
우려없이 활약할 수
있는 때
Don't Stop Drawing After Art Shows

<p>NONG HYUP Asian Apricot Tea 농협 허브가게 참마실 24.69fl.oz. \$19.99</p>	<p>CHUNGJUNGONE Canned Luncheon Meat (Pork) 청정원 캔마늘 미트볼 12oz. 2\$5</p>	<p>YODOONG Canned Bai Top Shell 유동양 사면산 굴병어 참조림 14.1oz. \$6.99</p>	<p>DONGWON Shrimp Cutlet 동원 통실 새우까스 1.00lb. \$5.99</p>	<p>CJ BIBIGO Boneless Crispy Chicken Breast Meat CJ 비비고 순살 크리스피 치킨 1 lb. \$5.99</p>
<p>HAID REUM Peeled Roasted Chestnuts 해오름 껍질 벗긴 완만 3.2oz. \$0.99</p>	<p>KWANG DONG Vitamin C-Mix500 Drink 광동 비타 500 비타민 음료 3.3fl.oz. x 1000's/pkg. \$4.99</p>	<p>Badminton Racket New Free Tour 베드민턴 라켓 \$8.99</p>	<p>STARSPORTS Feather Shuttlecock 스타 셔틀콕 \$2.99</p>	<p>Advanced Check Umbrella 고급 체크 우산 \$3.99</p>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8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Sun - 10pm

이미션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 팽팽...찬성 43.3%, 반대 44.2%

닷새 전 적격성 조사에 비해 긍정 여론 15% 늘어나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미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18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43.3%, 반대 44.2%로 찬반 양론은 0.9%p 초반반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섰다. 모름·무응답은 12.5%다.

닷새 전 적격성 조사(적격 29% vs 부적격 55%)에 비해 긍정 여론은 15%p 늘어난 반면, 부정 여론 10%p 줄어드는 등 여론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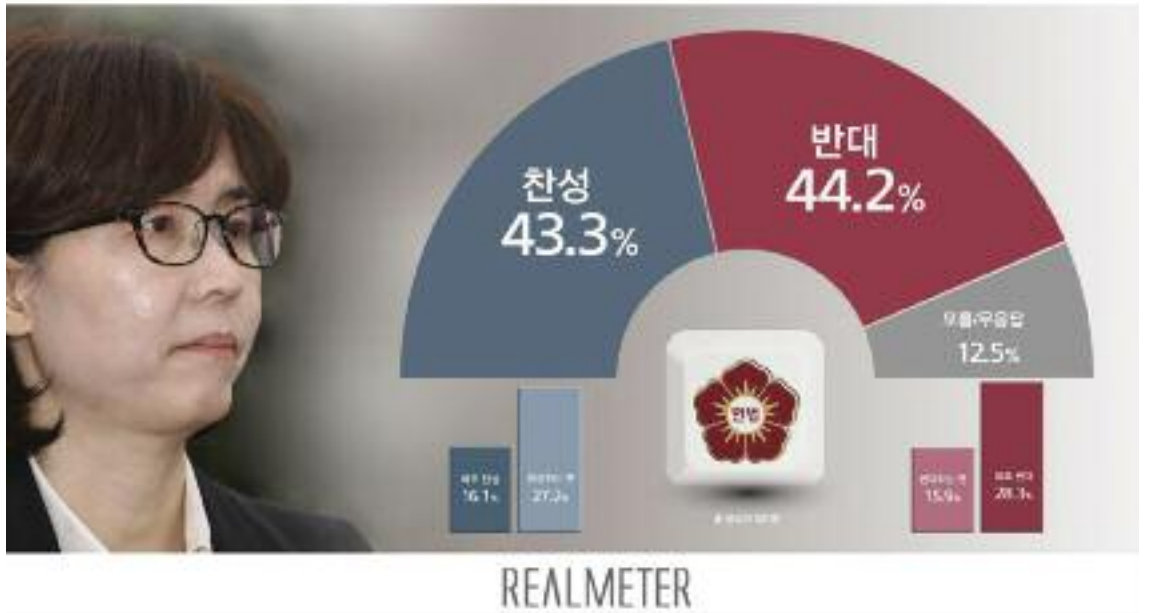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포함

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긍정 여론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진보층·중도층, 정의당·민주당 지지층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이처럼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 △주식 매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의 입장 선회와 더불어,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세월호 망언' 후폭풍에 따른 기류 변화가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

이미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4%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

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rkim@news1.kr

한은, 올해 성장률 2.5%로 낮춰...금리인하 신호 아냐

물가 1.4%→1.1% 하향 조정...기준금리 연 1.75%로 동결 리디노미네이션 일축...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계획도 없어"

(서울=뉴스1) 민정혜, 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p(포인트) 낮췄다.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3개월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총 0.2%p 낮춘 셈이다.

이번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정부가 진행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 수치지만 한국 경제의 활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75%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0.1%포인트 낮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총재는 그 이유에 대해 "1분기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이는 (정부가 편성을 진행 중인)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 금리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금리인하 '깜박이'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한은도 경제활력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가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

해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서 'R(Recession, 침체)의 공포'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R의 공포가 과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정부가 추경을 포함해 복지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전망에는 추경 효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지난 2월 통방문에 적혀 있던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흐름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에 대해 "성장률과 물가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을 정하기보다는 불확실성 대외 여건과 국내 영향,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하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4%에서 1.1%로 0.3%p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1분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약세 등으로 실질치가 크게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디플레이션은 가격이 상품, 서비스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이유는 석유와 농축수산물 가격 등 일시적 공급요인에 따른 영향이라는 의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통위는 통방문에서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0%대 중반으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 중인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1000원을 1원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효과가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이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 답변"이라고 밝힌 바 있다.

mjh@news1.kr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2차 조사 박유천, 마약거래 입금 추궁에 황하나가 부탁한 것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포폰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가 2차 경찰조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귀기했다.

이날 박씨의 2차 조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비공개로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마친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이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청사를 빠져 나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박씨가 전날과 같이 피로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박씨의 3차 조사는 다음주에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조사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진행 상황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경찰은 전날 1차 조사에 이어 박씨를 상대로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옛 연인 황하나씨(31)가 경찰조사에서 밝힌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또 올해 초 박씨가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원의 입금을 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도 제시하며 혐의사실을 추궁했다.

경찰은 "박씨가 이 부분에서 황씨가 부탁해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조사과정에서도 여전히 전날과 같이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 박씨는 캐주얼 복장에 모자를 착용한 채 취재진을 피해 마약수사대 건물 옆문으로 들어갔다.

koo@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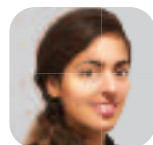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몰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퀴 라이센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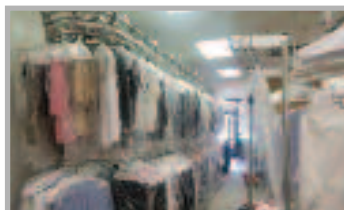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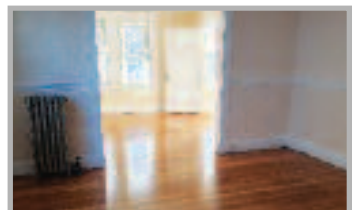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된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sking \$2000/월



●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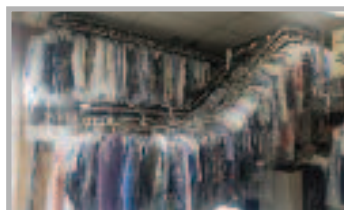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국제선 모금 만찬

2019.4.27
5PM (SAT)

아름다운 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친애하는 보스톤 시민 여러분,
 애타게 기다던 봄이 갑자기 한꺼번에 뉴잉글랜드에 찾아 왔습니다.
 개나리와 이른 봄꽃들이 향연을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 희노애락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년하는 국제결혼
 가정선교회 모금만찬을 돌아오는 4월27일 토요일 6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 이국땅에 오셔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네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며, “네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보스톤 국제선교 지부를 도우시고 23년동안 연중행사로 하는 모금만찬 (평화의땅,
 평화의집 쉼터)를 위한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자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나누는 선한 일에 동역자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 이웃들과 나누며 보람되고 알찬 날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스톤 국제선 지부일동

장소: DiBurro's Function Facility
날자: 4월 27일 2019년 오후 6시, \$60.00/person
주소: 887 Boston Road Haverhill, MA 01835
연락처: 978-828-5818 채명희 지부장
WWW.NAICFM.ORG





THE FACE SHOP
NATURAL STORY

The Face Shop 입점!

HAPPY
Mother's
Day

COCO화장품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시간이든 어느 날이든
그녀의 차가운 피부
가려움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COCO화장품의
최신 자생에센스
제품 소개합니다

40111 주

후 기품세트

F&P Grapefruit 바디 듀오 세트, 진유3종 여행용 세트 증정



\$220 Plus Tax

\$80 Value

후 화현 2종세트

화현 6종 여행세트 증정



\$220 Plus Tax

\$137 Value

후 비첩 자생에센스 2종세트

화율2종 여행세트, 진유3종 여행용 세트 증정



\$185 Plus Tax

\$125 Value

후 화율2종세트

공진향 폼클렌징 기획세트, 화율 4종 여행용 세트 증정



\$300 Plus Tax

\$245 Value

오위 더 퍼스트 4종 세트

더 퍼스트 골드 앰플 20ml 증정



\$280 Plus Tax

\$175 Value

오위 프라임 어드밴서 앰플 2종 세트

F&P ALO Ocean Flower 바디 듀오 증정



\$130 Plus Tax

\$20 Value

오위 에이지 리커버리 4종세트

에이지리커버리 5종 여행세트, 스트라이프 파우치 증정



\$170 Plus Tax

\$80 Value

오위 미라클 4종세트

미라클 크림 20ml, 미라클 앰플 마스크 2장 증정



\$140 Plus Tax

\$50 Valu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H 마트 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찬성 57.6% vs 반대 37.3%

여야4당 지지층, 50% 이상 찬성
한국당, 81%가 반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7.6%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7.3%, 모르거나 무응답은 5.1%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0.5%, 중도층 56.5%, 보수층 26.1% 순으로 특별수사단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층은 69.7%가 특별수사단 설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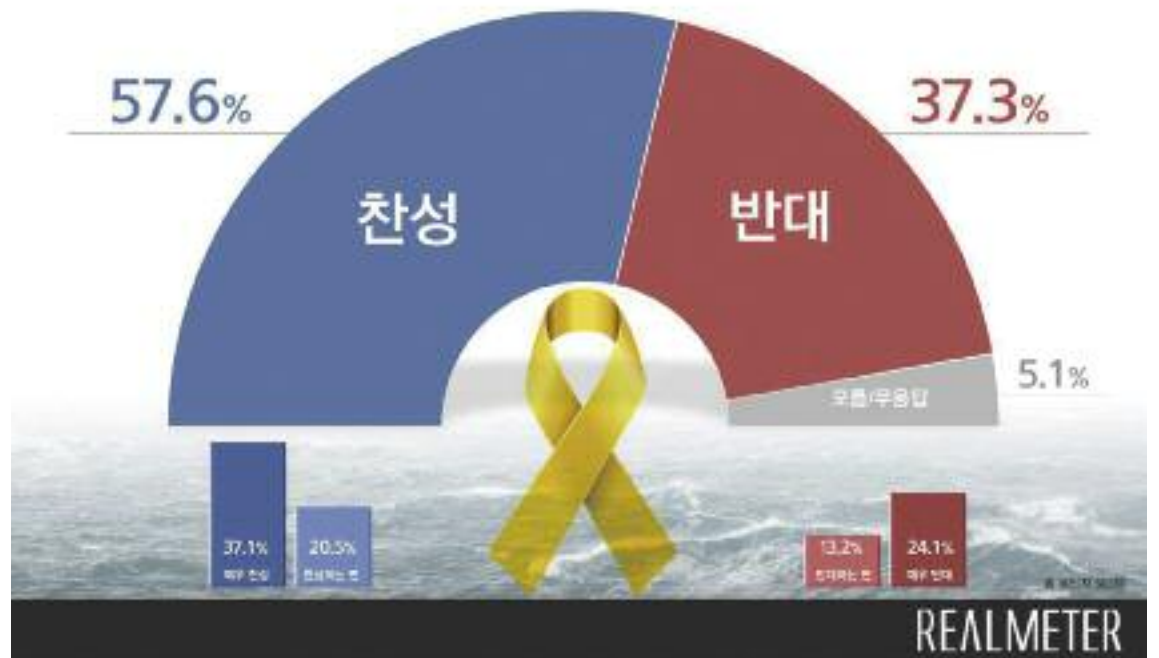
지지정당별로는 민주평화당 지지층

94.2%, 정의당 92.3%, 더불어민주당 86.2%, 바른미래당 55.0%, 자유한국당 14.3% 순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국당 지지층은 81.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78.4%, 경기·인천 62.6%, 서울 58.4%, 대구·경북 52.1%, 부산·경남·울산 52.0%, 제주, 45.9%, 대전·충청·세종 44.7%, 강원 30.1% 순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69.9%)과 제주(54.1%), 대전·충청·세종(49.4%)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 74.8%, 40대 61.6%, 30대 60.6%, 50대 57.7%, 60세 이상 41.3% 순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이상은 53.5%가 반대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



이번 집계는 무선전화면접(10%), 무식,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 면접(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 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asd123@news1.kr

세월호참사 특수단 설치,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설치 및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지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가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특수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줄 것을 청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단 설치와 수사 지시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세월호 CCTV 저장장치(DVR) 조작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 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진정한 추모와 기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를 통한 세월호참사 특수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청원을 꼭 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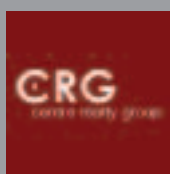
앞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5주기인 전날(16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청원진행중
대통령님께서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218,106명]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며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했다. cho11757@news1.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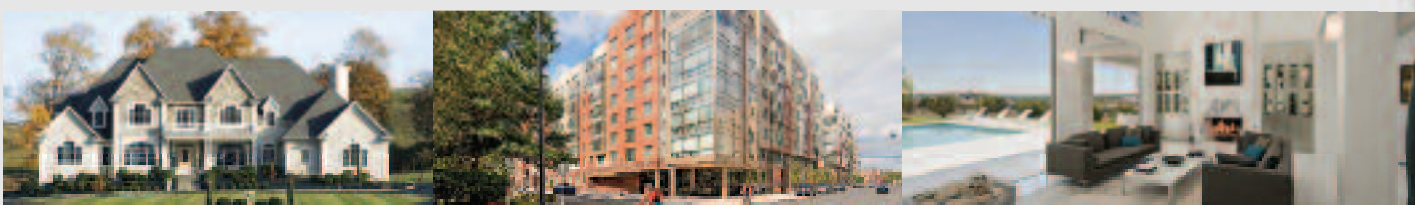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보스턴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99,000</p>	 <p>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너 파이낸싱 가능 보스턴 남쪽</p> <p>ASKING \$480,000</p>	 <p>보스턴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60,000</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p> <p>ASKING \$17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p>NH 대형 몰 안에 위치 8 Manicure, 9 pedicure 성업 중인 Nail salon</p> <p>ASKING \$150,000</p>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보스턴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70,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미국, F-35 설계기밀 넘길 수도 일본에 파격 제안

미일 전투기 공동개발...지난달 말부터 논의 시작 美록히드마틴, F-22 기체+F-35 장비 제안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이 2조엔(약 20조원) 규모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던 F-35 스텔스기의 설계 기밀을 일본에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일본 국방부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2035년부터 퇴역을 시작하는 F-2 후속기 개발을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F-2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전투기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90대 보유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최근 미국이 F-35의 엔진 등 부품이나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해 기체에 탑재한 소프트웨어 기밀을 일본 측에 넘기겠다는 의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스텔스기 소스코드(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일본 측에 넘기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미국은 F-2 후속기에 일본산 부품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미국의 제안은 경쟁국인 영국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정부도 일본에 전투기 설계 관련 극비사항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양국이 3월 말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 수용 여부를 포함해 항공기 개발 과정을 연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22 스텔스기 기체에 F-35 항전장비를 탑재한 신형 전투기 공동개발을 일본에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F-35와 F-22가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일본 방위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수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angela0204@news1.kr



미중 무역협상, 이르면 5월말 타결될수도 트럼프 성공 느낌

WSJ "로버트하이저, 이달 마지막주 中 방문...므누신 동행"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협상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미중 양측이 내달 말이나 6월 초 협정 서명을 목표로 두 차례 대면 협상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하리라 예감이 든다"며 곧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중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29일 시작되는 주에 베이징을 방문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어 그다음 주에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찾을 예정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대표단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4-5월 협상과 이후 서명 일정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류 부총리와 회담 뒤 제시한 타

결 일정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협상에 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지식재산권, 관세 철폐 시기 등 아주 중요한 이슈를 남겨두고 있다"며 "협상이 4주 이내에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관리는 미중 협상단이 5월 초 합의에 성공한다면 이후 약 2주간 합의 문구를 마무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한 다음 빠르면 메모리얼 데이(5월27일) 전에 대통령 서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해 아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듣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sy@news1.kr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


신입회원 및 학생회원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보스톤 중앙대 동문회 제23차 정기총회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안건: 23차 정기총회
일시: 2019년 4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불판 레스토랑 (Bulpan Grill & Lounge)
27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문의처: 회장 이기환: 781-270-4627



동문들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고자 동문님과 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23차 정기총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 하셔서 청량 중앙인의 사랑과 화목의 자리를 빛내 주시고 명수대 언덕 추억의 강가를 함께 거니는 보스톤 중앙인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BOSTON 중앙대학교 동문회원 (순서없음)

김정숙(경제 54)	한윤영(심리55)	김섭(사사62)	신영각(경영대학원)	이진주(화학60)	김재숙(화학64)
이경빈(신방59)	박성규(심리64)	김유상(국문64)	이기환(광산65)	강천성(기계70)	김옥식(심리77)
김세형(화공77)	이시원(약학83)	윤경우(약학62)	김아람(사건87)	이상현(경영62)	조제석(디자인91)
강운주(조소91)	유경렬(철학88)	장승훈(건축공학 70)	김배규(피아노96)	이어름(무용97)	
강천성(공과대학원 82)	최에스터(행정대학원 86)	유혜경(음악대학원 98)			

강원도 산불재난 피해복구 후원에 대한 호소문

5개시군(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혜의 관광도시 강원도에 미주 동포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 견잡을수없이 커져버린 이번 산불은 주거지는 물론 임야와 건물, 산업시설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피해복구를 할수없을 만큼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45시간만에 진화된 이번 산불은 사상자까지 발생하였고 건물 500여채와 임야53헥타르, 약 축구장740개의면적을 태운 큰 불이었습니다,주민들에게는 재산피해와 함께 앞으로의 생계와 주거, 정신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정신건강과 생계를 이어갈수 있도록 미주 동포들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강원도를 위하여 뜻을 함께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참하실분들은 아래의 연락처와 방법으로 연락주시면됩니다.

미주 강원도민 총연합회 회장 안병학
보스톤 강원도민회 회장 박천우 배상

문의 : 774.270.1948

아래주소로 후원금 또는 Check를 보내주시면 저희 도민회에서 강원도청 담당부서로 보내게 됩니다.

주소: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서울설령탕)

수신자: 박천우(서울설령탕 대표)

Payable to : GWD Association of N America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ne of Douay Parish of Boston, MA

판공성사
주일과 평일미사 전후 30분
3/27(수), 4/3(수) 7pm-9pm

성목요일 (4/18)
8pm- 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9)
3pm- 십자가의 길
8pm- 수난예절

성토요일 (4/20)
9pm- 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21)
3pm- 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45
office.kcct@gmail.com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5월 1일부터 Tbo Plus 상품의 가격이 \$14.99에서 \$24.99로 인상됩니다.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서둘러 가입하세요!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나의 특별한 형제', 신하균X이광수의 ♥보다 진한 '브로맨스'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배우 신하균, 이광수가 진한 '브로맨스'로 가정의 달 가족 단위 관객들의 마음을 노린다.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는 실존 인물인 두 장애인인 진한 우정을 나누는 휴먼 드라마로 웃음과 먹먹한 감동을 줬다.

1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육상호 감독)의 언론배급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인공인 신하균과 이광수, 이솜, 육상호 감독이 참석했다.

'나의 특별한 형제'는 머리 좀 쓰는 형 '세하' (신하균 분)와 몸 좀 쓰는 동생 '동구' (이광수 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두 남자의 우정을 그린 휴먼 코미디다. 지체 장애인 최승규씨와 지적 장애인 박종렬씨의 실화를 극화한 이야기다.

이날 육상호 감독은 이번 영화에 대해 "가족은 혈연으로 이뤄졌지만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씩 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함께 힘을 내 살아가자는 생각을 담았다"고 영화의 의미를 강

조했다. 신하균은 극중 '책임의 집' 대표 브레인 지체 장애인 세하 역을 맡았다. 이광수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365일, 24시간 세하의 손과 발이 돼주는 지적 장애인 동구 역을 맡았다. 또 이솜이 형제에게 20년 만에 새로 생긴 '베프' 미현 역을 맡았다.

신하균과 이광수, 두 배우는 각기 다른 장애를 연기하는 '미션'을 받았다. 신하균은 지체 장애인 역할이라 말이나 표정 외 몸으로 표현할 수 없었고, 이광수는 지적 장애인 역할이라 대사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신하균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게 이렇게 어려웠지 몰랐다. 첫 도전이고, 가만히 있는 게 어렵더라. 모든 감정을 갖고 몸을 제어하면서 연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세하 같은 경우는 상처, 어릴 적 상처 때문에 공격적이고 거친 면도 있지만, 내면에 담긴 따뜻한 면, 삶에 대한 의지나 그런 책임감도 있고 동생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잘 표현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다"고 연기 주안점을 설명했다.

이광수는 "대사가 많지 않아서 대본에서 관객을 볼 수 없는 지문이나 그 상황, 그 신의 어떤 생각을 동구가

어떻게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감독님과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표정이나 눈빛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솜은 두 형제와 친해지는 '취준생' '미현' 역을 맡았다. '소공녀'를 비롯해 여러 작품에서 청춘의 얼굴을 보여준 이솜은 "청춘의 얼굴을 담은 캐릭터를 생각보다 많이 했다. 그런 캐릭터에 끌려가는 것 같다"면서 "미현이라는 캐릭터는 보통 청춘의 모습이어서 그걸 감안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일어서려는 모습이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했다. 미현의 캐릭터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을 대변하기도 했다.

세 배우는 영화에서의 관계처럼 실제로도 친밀한 사이가 됐다고 했다. 성격적으로 어울리는 게 많다고 신하균은 "처음 만났지만 같이 함께 한 사람인 것처럼 성형이나 좋아하는 것이 잘 맞아서 사적으로 친하게 지냈다"며 "광수씨는 처음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집중력이 좋고 몰입 잘하는 배우인지 처음 알았다. 현장에서 보면서 많이 놀랐다"고 이광수에 대해 칭찬했다.

또 이솜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센스 있게 잘하더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의



연기를 아주 잘해서 관객들이 몰입을 잘 할 것 같다"고 했다.

이광수 역시 "사실 두 분 다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전해들어서 만나기 전부터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들었던 것 이상으로 좋고 형이 워낙 편하게 해주고, 숨이도 워낙 밝고 현장에서 모든 분들과 너무 잘 지냈다. 촬영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형 나이가 됐을 때 형처럼 살고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

여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영화는 형제처럼 살아온 두 남자의 우정을 담담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특별한 시선을 담기 보다 서로의 빈 곳을 채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일상에서 착안한 소소한 유머와 밝은 분위기가 가족 영화에 걸맞았다.

한편 '나의 특별한 형제'는 5월 1일 개봉한다.

eujenej@news1.kr

4월 21일 - 4월 2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애쓰는 것에 대한 보상</p> <p>● 운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걸어온 사람에게 그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애쓰는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 금전: 그간에 쌓아온 인맥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득이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주변 사람들의 말은 그저 참고만 할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2, 25일 길일. 24, 27일 주의.</p>	<p>소띠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p> <p>● 운수: 허던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욕심이 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일시적인 해결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 애정: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수록 둘 사이의 틈은 점점 커지고 멀어질 뿐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1, 26일 길일. 25, 27일 주의.</p>	<p>범띠 이미지 변신에</p> <p>● 운수: 보이는 것이 큰 영향을 주는 때이니 조금만 신경 써서 외모에 변화를 주세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수입이 나이지는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여세요. ● 애정: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떠나보세요. 자연의 마음이 마음의 빗장을 풀어 해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5, 27일 길일. 22, 26일 주의.</p>
<p>토끼띠 좋은 시간을 선물</p> <p>● 운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도움도 받습니다. ● 금전: 기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해야 거두어들이는 것도 커질 것입니다. ● 애정: 모임이나 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행운이 따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3, 25일 길일. 21, 27일 주의.</p>	<p>용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p> <p>● 운수: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올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세요. ● 금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마세요. ● 애정: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더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1, 23일 길일. 22, 26일 주의.</p>	<p>뱀띠 한숨 돌리게</p> <p>● 운수: 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달려오던 상태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게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 금전: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수지타산이 맞을 것입니다. ● 애정: 주위의 소개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2, 27일 길일. 21, 23일 주의.</p>
<p>말띠 참고 지나가는 것이</p> <p>● 운수: 자꾸 마음이 가고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 금전: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 애정: 너무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세요. 융통성 있게 제고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3, 27일 길일. 21, 24일 주의.</p>	<p>양띠 누울 자리를 보고</p> <p>● 운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려는 옛말을 기억하세요.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충동구매하지 않도록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돈을 쓰지 않으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애정: 같이 있으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4, 27일 길일. 22, 26일 주의.</p>	<p>원숭이띠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고</p> <p>● 운수: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충분히 즐겨야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물 들어올 때에 노를 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풀릴 때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애정: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따뜻한 정이 담긴 말로 상대의 마음을 문을 열어보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4일 주의.</p>
<p>닭띠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p> <p>● 운수: 이미 알려진 것보다 새로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색다른 재미를 줄 것입니다. ● 금전: 그동안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도 희소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함께 하는 즐거움이 클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기분 좋은 일도 생기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p>	<p>개띠 경청하고 배려하는</p> <p>● 운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금전: 소극적으로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 애정: 상대가 내 맘과 같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p>	<p>돼지띠 타이밍이 아주 중요</p> <p>● 운수: 잠깐이라고 생각한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투자에 있어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득과 실로 갈라지니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힘들어지게 하는 방해요소가 생깁니다. 마치 넘어가야 할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5/3
벨몬트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5/3
렉싱턴센터에 위치한 한,일식당 다빈에서
함께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781-860-0171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5/3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유재석x조세호 케미 업그레이드...돌아온 '유퀴즈'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시작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유퀴즈 온 더 블럭' (연출 김민석)이 드디어 첫 방송을 시작했다.

지난해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재미와 퀴즈 룰, MC들의 케미스트리로 돌아온 '유퀴즈 온 더 블럭'인 만큼 볼거리에 긴장감, 웃음도 배가됐다. 특히 정답을 맞힌 후 한 번 더 도전하면 상금이 200만원으로 2배 더 늘어나는 새롭게 추가된 룰에서는 정답을 맞히 못할 경우 첫 번째 퀴즈의 상금까지 날아가는 혹독한 법칙이 뒤따르기 때문에 숨죽여보던 현장 시민들은 물론 안방 시청자들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탈락 보상도 크게 확대돼 정답을 맞히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아기 자기' 조세호의 '마법 가방'에서 선물을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 것 또한 큰 관전포인트였다. 하루 아침에 슈퍼스

타가 된 '할담배' 지병수 할아버지는 퀴즈 맞히기에서는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단번에 TV를 뺏아 오하려 현장에서 박수갈채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가 하면, 퀴즈맞히기 전부터 쿨한 화법으로 빅웃음을 선사하던 79세 할머니는 "나는 원래 욕심이 없어서 주는 대로 받겠다" 던 말과 달리 추첨 결과로 '생선모양 슬리퍼'를 받아 "선물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도 말라" 고 슬리퍼를 내동댕이쳐 안방극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 같은 웃음 뒤에는 가슴 뭉클한 시민들의 인생이야기도 함께 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이발관인 85세 할머니는 가난이 힘들어서 60년 전 아버지로부터 이발을 배워온 삶에 대한 이야기와 남편과 아들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렵게 사는 현재 삶 속에서도 하루 3~4명의 이발 손님들을 받으며 행복



을 찾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큰 울림을 선사하기도 했다. 복권 한 장 사지 않는다는 할머니한테 결국 두 MC는 '마법가방' 추첨도 권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묵묵히 나왔다는 후문.

이같이 소박한 시민들의 일상에 행복을 전할 '큰 자기와 아기자기의 사람여행'을 그리며 '유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tvN에서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라디오스타' 강주은, 최민수 덕에 SNS 스타? "최민수도 좋아해"

(서울=뉴스1스타) 황지혜 기자= 강주은이 최민수에 대해 언급했다.

17일 밤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게스트로 강주은, 권다현, 임요환, 정경미가 출연했다. 스페셜 MC로는 개그맨 양세형이 출연했다.

강주은은 최민수의 사진과 함께 재치있는 멘트를 달아 업로드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근황이 공개됐다. 강주은은 "최민수 덕에 SNS 스타됐다"는 MC말에 "최민수도 좋아한다"고 말하며 관심이 모아졌다.

hwangnom@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your home!
Please call us for your major and mid-size renovation and new build projects.

otk212@gmail.com 617.620.8242

No handyman jobs, please.

© 2019 OTK DeCon Group

낙타가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나오는 말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익히 들어본 성경 구절이다. 어린 시절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낙타가 왜 바늘구멍을 빠져나갈까? 그런 궁금증은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까지도 풀리지 않았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이 어떻게 비교대상이 되는지 영 알 수가 없었다.

당시 같은 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배철현 박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 그 구절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분은 히타이트어, 아카디아어, 페니키아어는 물론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랍어를 포함한 중근동 지역의 고대 언어들을 두루 섭렵한 대단한 학자였다. 그분의 설명은 이러했다.

영어 camel은 프랑스어의 중계를 거쳐 라틴어 camelus에서 전해졌다. 이 단어는 또 그리스어 kamelos에서 왔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나 페니키아어 gamal에서 왔다. 또 이 단어는 궁극적으로는 ‘짐을 지다’란 뜻의 아랍어 jamala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여담이지만 아랍의 낙타는 흑이 하나인 ‘단봉낙타’이고 몽골의 낙타는 흑이 두 개인 ‘쌍봉낙타’이다. 낙타는 사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가축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 이름으로도 자주 쓰

인다. 이집트 2대 대통령이었던 Gamal Nasser를 비롯해 이집트 혁명 직전의 대통령이었던 호스니 무바라크의 아들도 Gamal Mubarak이다. Gamal은 Jamal, Gimel 등으로 철자되기도 한다. 물론 gamal은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지기도 하나까이 이름들이 ‘낙타’란 의미로 지어진 것인지 ‘아름다움’이란 의미로 지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랍세계에서는 낙타가 아름다움의 상징일 수도 있으니 그렇게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필자는 방송 녹화를 위해 튀니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낙타를 타고 하루를 보낸 기억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사막의 유랑민족인 베드윈과 하루를 보내는 여정이 있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은 여정을 멈추고 임시 천막을 쳤는데 낙타들은 결박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낙타들은 멀리 가지 않고 주인 곁에서 풀을 뜯을 뿐이었다.

아무튼 배철현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 아랍어에서 낙타를 나타내는 단어와 동아줄을 나타내는 단어가 어근이 같다고 한다. 아랍어나 히브리어는 모음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자음 어간만을 쓴다. 물론 구어에는 모음이 있지만 문어에는 모음 표기가 없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음을 추가해서 읽을 뿐이다.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자들이 그만 ‘동아줄’을 ‘낙타’로 잘못 표

기하여 생긴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이 그분의 설명이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맞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고쳐질 리는 만무하다. 종교 경전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서 따져보는 것 뿐이다.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동아줄을 바늘구멍에 끼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간다. 바늘에 들어가는 가는 실 대신에 동아줄을 넣기는 어려울 테니까. 낙타비유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게 와 닿는다.

반론도 있다. 어떤 학자는 고대 히브리 지역에 흔했던 동굴 집에는 낙타를 넣어두는 일종의 마굿간이 있었는데 그문이 아주 작아서 낙타를 집어넣기가 어려웠던 데서 이러한 비유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5장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로 여덟 가지 복을 가진 사람들을 언급한다. 이를 하여 ‘참 행복’ 혹은 ‘여덟가지 행복’이라 번역하는 the Beatitudes이다. 지면관계상 모두 옮길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니 천국의 너희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들에게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부자들은 언제나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noblesse oblige이다.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예수 다시 살아났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2019년 4월 21일, 시간: 오전 6시, 설교: 김태환목사
장소: 성요한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구원영도연합감리교회, 디서펄사립교회, 내슈미안마침교회, 뉴햄프셔감리교회, 뉴햄프셔인민교회, 로더일랜드감리교회, 로더일랜드장로회, 로더일랜드장로회,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알곰교회, 보스턴총회장로교회, 보스턴장로교회, 보스턴감리교회, 보스턴 조이교회, 보스턴불우교회, 보스턴 다문화교회, 웨스트포드행인교회, 보스턴서부장로교회, 보스턴성경교회, 보스턴인민교회, 보스턴소영교회, 보스턴시온성교회, 보스턴제일교회, 보스턴주님의교회, 보스턴중앙교회, 보스턴필그림교회, 보스턴인민교회, 보스턴인민연합교회, 북부보스턴연합감리교회, 바전교회, 새빛교회, 생명의결장로교회, 성요한연합감리교회, 순복음보스톤교회, 시온인민연합감리교회, 아름다운교회, 민디악연합감리교회, 일방교회, 무스터인민연합감리교회, 픽싱프린리어교회, 웰슬리인민교회, 온혜진리교회, 영미뉴영연합교회, 송문감리교회, 지구촌빙주교회, 처인브리저연합장로교회, 케임브리저연합교회, 퀸지연합장로교회

안마의자는 체형에 알맞는 제품인지, 생산회사가 어디고, 몇년된 회사 제품인지, WARRANTY 내용 및 기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세요!

• 무료 딜리버리 + 완벽한 설치 + 최고의 서비스 • 전문 기술자 상주 최대 5년 워런티 실시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HiTRONS MOTHER'S DAY SPECIAL SALE

★ 선착순 20명 ★ 세일기간 5/30/2019

 <p>INADA SOGNO</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SOL 안마의자 무료증정 (\$2000 상당)</p> <p>\$5,200</p>	 <p>POSITIVE POSTURE BRIO</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SOL 안마의자 무료증정 (\$2000 상당)</p> <p>\$104 /M 48m + Tax</p>
 <p>Panasonic MAJ7</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p> <p>\$166⁷⁵ /M 60m + Tax</p>	 <p>Panasonic MA73</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p> <p>\$142 /M 48m + Tax</p>
 <p>Orest OS5000</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p> <p>\$114 /M 48m + Tax</p>	 <p>FUJIIRYOKI FJ7900</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담채 김치냉장고 120L 무료증정</p> <p>\$148 /M 36m + Tax</p>
 <p>BODYFRIEND REX L+</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LG 스타일러 무료증정</p> <p>\$155 /M 48m + Tax</p>	 <p>BODYFRIEND PHARAOH</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LG 스타일러 무료증정</p> <p>\$155 /M 48m + Tax</p>

<p>INADA NEST</p> <p>\$125 /month 48m + Tax</p>	<p>INADA FLEX 3S</p> <p>\$125 /month 36m + Tax</p>	<p>PANASONIC MA7D</p> <p>\$81 /month 60m + Tax</p>	<p>PANASONIC 30007</p> <p>\$100 /month 36m + Tax</p>	<p>PANASONIC MA10</p> <p>\$83 /month 24m + Tax</p>	<p>COZZIA CZ 710 Qi SE</p> <p>\$166 /month 36m + Tax</p>
---	--	--	--	--	--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p>NJ Main Branch</p> <p>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p>	<p>Bethel Health - NY</p> <p>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p>	<p>Bethel Health - NJ</p> <p>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p>	<p>PA Branch</p> <p>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p>	<p>MD Branch</p> <p>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p>	<p>Mattress- NJ</p> <p>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p>
--	---	--	---	--	---

신영의 **세상 스케치**

691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Soo Rye Art Gallery 그룹 전시회에 다녀와서...

지난 4월 13일(토) Rye, NH 소재 Soo Rye Art Gallery에서 한인 작가와 더불어 미국 작가들의 그룹전 오픈식이 있어 다녀왔다. 한인 작가는 SooRye Yoo, In sun Cho, Catherine Byun Min 작가와 미국 작가로는 David Christopher Isle, Maddison Safer, Tracey Hayes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었다. 갤러리 전시회는 April 9th-April 30th까지이다. 이렇듯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이들이 둘러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갤러리에 일찍 도착해 사진도 미리 몇 닥고 조용한 시간에 작가들의 작품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감상할 수 있어 감사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음악 연주를 위해 Claudia Landell가 더욱더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클라우드리아는 유수레 작가의 그림 제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으며 공부를 했다. 또한, 가족들 대대로 음악인 가족이기도 하며, 글을 쓰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갤러리 전시회 날에 클라우드리아가 연주한 곡들은 1920년대와 30년대의 재즈에서 영감을 얻어 오리지널 곡을 연주했

다고 한다. 클라우드리아는 유 작가와는 친한 친구이자 그림 제자이기도 나와도 가끔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다. 이번 가을에 CD가 출판되어 현재 녹음 중이라고 한다.

Soo Rye Art Gallery 관장인 유수레 작가는 여느 때와는 달리 이번 작품은 다양한 재료로부터 아이디어를 발상해 에센셜리한 작업을 느끼게 했다. 바닷가에서 주어진 나뭇가지들 바닷물에 썰리고 씻기고 패인 것들로부터 생명을 불어넣어 금방이라도 필떡일 것 같은 생동감을 그대로 전해주기도 했다. 또한, 언제나처럼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자처한 '한마리의 새' 그 깊은 고뇌의 가슴은 볼 때 뿐만이 아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늘 여운으로 남아 며칠을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녀의 작품은 주인을 참 많이 닮았다. 말간 영혼의 그 빛은.

조인선 작가의 작품을 만나며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이렇게 귀한 작품을 마주할 수 있음이 감사했다. 조 작가는 민화 작가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전통성을 품고 섬세한 선과 아름다운 색채로 채색해 표현한 작품을 마주하며 그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 갤러리를 찾은 많은 미국인도 색다른 색채의 민화를 마주하며 오래도록 마주하는 것이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미국인에게도 우리 전통의 민화를 소개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전시회가 April 30th까지이니 시간을 내어 많은 이들이 찾아가 귀한 작품을 만났으면 좋겠다.

변순득 작가의 작품을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도 얼마 전에 Grand Canyon Hiking을 다녀온 이유인지도 모를 일이다. 자연의 장엄함과 신비로움에 숨이 멎을 것 같았던 그 시간 자연이 만들어 낸 거대하고 웅장한 협곡인 바위 숲을 만나고 왔던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 변 작가의 작품은 아프리카 조각상을 작가의 영혼을 담아 표현한 작품이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끌림에 그 작품 속 아프리카 조각상의 눈과 내 눈이 서로의 눈 뒤통수까지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었다. 누군가 벌써 작품 다섯 점을 이미 그려니 시간 내어 가보시길 바란다.

미국 작가 David Christopher Isle은 아주 디테일하게 드로잉한 자신의 추상적인 작품이다. 데이빗은 Soo Rye Art Gallery에서 오

랫동안 매니저 역할을 했었기에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자신의 작품에 몰입하면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열정적인 면도 있어 선배 작가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기도 한다. 이렇듯 자신의 세계를 열어 다른 이들과 소통하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그대로 의거진다. 또한, 미국 작가 Maddison Safer은 일러스트 작가이며 뉴햄프셔의 생활을 따뜻하고 정감있게 표현해 보는 이들에게 서정적인 느낌을 주어 좋았다.

또한, 미국 작가 Tracey Hayes는 자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추상성으로 표현해 편안한 느낌으로 마주하게 했다. 무엇인가 막히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아 보는 이들에게 힐링을 느끼게 했다.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가끔은 이처럼 편안한 작가들의 자연스러운 작품과 마주하며 치유를 얻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일이다. 100여 명의 사람이 갤러리를 찾았다. 여러 작가의 생각과 사상과 느낌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편안하게 묻고 정성스럽게 답해주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번 Soo Rye Art Gallery 그룹 전시회에 다녀오면서 감사를 가득 담아왔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아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지난 겨울이다. 폭설에 앞마당 소나무 가지가 무겁게 휘어졌다. 흰 가지가 애처로웠는데, 눈이 녹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황지우 시인이다. 소나무에 대한 예배이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당당하다.

눈발 뒤집어쓴 소나무,
그 아래에서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려왔다.
...
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이 地表 위에서 가장 기품 있는
建木; 소나무,

(황지우, 소나무에 대한 예배중에서)

겨울 앞에선 앞모습만 보인다. 뒷모습을 볼 수는 없다. 연못에 비친 제 모습에 꺼벅 죽는 나르시스도 제 뒷모습은 볼수 없었을 터. 그런데 내 뒷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다. 언젠가 일터에서 일인데, 사진을 쳐다 볼적에 혼자 당황했다. 내 뒷모습이 생소했고 가관이었기 때문이다. 어제는 한 쪽이 기울었고, 꾸부정한 모습이 정녕 이웃집 노인과 다르지 않았다. 혹시 자신의 뒷모습을 본적이 있으신가?
책장에서 책을 찾다가 작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다. 눈에 익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책

장을 넘겼다. 십수년전, 가까운 분에게서 선물 받은 책이었다. 우리 아이가 한창 자랄 적이었다.

책 제목이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제목은 긴데, 단원마다 글은 짧다. 책 저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자신의 아이에게 들려주고픈 말을 편지처럼 썼다. 첫장인데 그대로 옮긴다.

'명확한 말투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말하기는 또렷하고 정확하며 힘찬 말투로 얼굴표정이나 몸짓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말하는 것'
당당하라는 말일 것이다. 한마디 덧붙인다. 뒷모습도 곧고 당당해야 한다. 허리를 펴라는 말과 같다. 하지만

너무 어른스러운건 경계해야 할 것이다. 되바라졌다 하던가?

하긴, 세상에 아이같은 어른들도 있다. 철없는 어른이라 해야겠다. 내가 그렇다. 아내의 투정이다. 이젠 어른을 넘어 철없는 노년으로 간다. 세상적 버릇이 어디 같것인가? 아이에게 주는 말이 내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문이 되었다.

박집사님 전집사님. 안녕하신가요. 아이들도 뒷모습 뜻깊이 잘 자라고 있겠지요. 주신 책 고맙습니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이제 다시 읽으려 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아가 6:4)



행사기간
4월 26일 ~ 5월 19일 까지

가정의달 최고의 선물 정관장 특별 프로모션

“보스톤 매장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정관장

정관장



홍삼의 6대 효능

- ▶ 면역력 증진
- ▶ 피로개선
- ▶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순환
- ▶ 기억력개선
- ▶ 항산화에 도움
- ▶ 장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마일드 **100g** 증정



\$60 상당

Event 2

3+1

화매락 분, 진 구입시
10포 추가증정



Event 3

홍삼톤 골드, 마일드, 홍천웅 구입시
홍삼톤 마일드 **10포** 증정



Event 4



홍삼추출액 구입시
5포 추가 증정

Event 5

홍이장군, 아이패스 구입시
아이키커 (사과맛) 2박스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내 눈에 행복

내 친구 하나가 20여년전 캐나다에 처음으로 이주했을 때, 미리 이주해 온 지인에게 몇가지 조언을 들은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 내용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그동안 지탱해 온 나의 사고관에 인지 시키기 위해 힘이들었던 것 같다. '남자와 우산을 같이 쓰지 마라' 비에 흠뻑 젖더라도, 우산을 같이 쓰면 '게이'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우산을 같이 안쓰거나, 안쓰려고 하면 인간성이 비열한 사람으로 인식되는데 비해, 이곳에서는 다른 뜻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의 행동에 무관심 해라' 였다. 그 당시 영연방에서는 홍콩의 중국귀환을 앞두고, 홍콩의 자본흡수를 위해 투자이민을 개방했다. 이로 인해 홍콩 출신 고등학생이 최고급 승용차로 등교하는 것이 종종 목격되었다. 백인 선생님은 15년 된 소형차를 몰고 주차하고, 그 옆에 BMW 750은 새로운 홍콩학생이 주차한다. 그래도 누구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상대방의 성공은 상대방의 가치기준이고 나의 성공은 나의 가치기준이다. 나의 성공 기준이 '가족과 기쁘게 사는 것' 이라면, 가족과 기쁘게 사는 동안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다. 문제는 나의 성공 기준이 타인의 영향을 받으면 복잡해지고 불행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을 '남들에게 존경 받고 인정 받는 것' 에 목표를 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매일 실적보고서를 연구해서 오늘은 누가 1등이고 자신이 몇 등을 했나 분석했다. 1등을 하기위해서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가 해가 될 수 있나를 연구했다. 결국 1등을 유지 했을 때는 행복했었는데, 1등에서 떨어졌을 때는 불만으로 가득찼다. 하지만 1등을 유지하는 날보다는 1등이 아닌 날이 더 많은 인생에서 그는 불만족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1등을 했다고 더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친구가 1등을 했을 때도, 1등이 아니었을 때도, 회사동료들은 늘 같은 정도

만큼 이 친구를 존경했다는 것이다.

타인을 의식하면 타인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 데레사 수녀나 슈바이처 박사처럼, 타인들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타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불행히도 우리는 어릴적부터 1등을 강요 당했다. 내가 10등을 해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 무한경쟁의 사회였기에 오직 1등만이 사회적 안정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내가 1등이 아니면 부모들은 '너희 학교 1등은 누구니?' '그 부모는 좋겠다', '너는 왜 1등 못하는데' 그래서 엄친아라는 단어도 생긴 것 같다.

다행히도 우리는 1등주의가 필요없는 미국사회에 산다. 꼭 1등을 안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툴루랄라 행복을 챙겨서 출근 준비를 한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비즈니스 파트

너가 근심스런 표정으로 다가오면, 'It's going to be Alright, Buddy' 하고 찡긋해 준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71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1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해군에 살던 미실의 가족을 왕궁으로 데려온 진흥왕은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궁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진흥왕은 미실을 잊지 못하여 입궁하여 자신과 함께 거처하기를 원했다. 당시 모든 내정은 사도와 미실이 외정은 세종과 설원, 미생 등 미실의 일파가 좌우하였다.

576년에 죽은 진흥왕은 그 전해 말부터 이미 친정을 하지 못했고 모든 정사를 사도왕후가 대리청정을 했다. 그리고 4월에는 미실전주가 대리청정을 하기도 하였다. 진흥왕이 죽은 8월까지의 사문태자가 대리청정을 하였다. 이 때도 모든 내정은 사도와 미실에 의해 태자에게 전달되었다. 576년 8월 진흥왕의 죽음을 전후하여 화랑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후가... 명궁주(明宮主)를...하고, 신궁(新宮)을 왕후궁 좌원(左園)에 지어, ...모궁(母宮)... 하종이 입궁하여 공주와 전군의 벗이 되었다. 그때 미실은 세종공의 아들을 임신한 지 이미 수개월이 되었으므로, 해산을 하고 입궁하겠다고 청했다. 제후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입궁하여 옥종공(玉宗公)을 낳아 제후의 마복자(摩腹子)로 삼았다. 이에 미실에 대한 총애가 다시 예전과 같아졌다. 미실은 심복들을 모두 다시 끌어 모아 중요한 지위를 주었는데, 제후가 모두 허락했다. 또 세종공에게 명하여 입궁하여 살도록 했다.

미실은 이에 사도왕후와 함께 내정을 마음대로 했고, 세종, 설원, 미생은 외정을 마음대로 했고, 오직 사도, 미실, 보명, 옥리, 월화 다섯 궁주와 더불어 궁중에서 즐거움을 탐닉했다. 정사는 모두 사도와 미실로부터 나왔다. 처음에 사도와 더불어 미실은 삼생(三生)의 일체가 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이르러 제후가 자못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미실은 세종에게 사도의 사랑후를 받도록 권했다. 세종은 힘써 거절했으나 어쩔 수 없이 후후와 통했다.

진흥제가 죽자 사도, 미실, 세종, 미생은 비밀로 했다. 태자가 알지 못했다. 사도가 먼저 미실로 하여금 태자와 통하게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태자를 왕위에 오르게 했다. 몸소 제위(帝位)에 있으며 신왕(新王)을 통제하고, 말보의 남편인 황종공(荒宗公)을 상대등으로 삼아 중광(衆望)을 높였다.

그 때 황종공의 딸인 윤궁이 미실의 심복이 되었고, 윤궁의 누이인 윤옥은 미생의 첩이었고, 윤궁의 남동생인 윤환은 사도의 딸인 월룡공주를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황종공을 추대한 것이다. 거칠부(居柒夫)공은 나이가 많아 대등인 노리부(魯里夫), 노동공(魯同公) 등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므로 미실은 권세를 잃지 않았다. 하종공에게 급찬(急遷)의 위를 주었다.]

진흥왕의 죽음을, 당시 내외정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도왕후, 미실, 미실의 남편 세종(

세종을 노동공으로 추축해 본다, 삼국사기에는 세종, 노리부, 노동공 모두 동일인으로 나온다), 미실의 동생 미생, 사도의 동생 노리부, 미실의 정인 설원 등은 비밀로 했다. 태자 김사륜은 몰랐다. 사륜은 사도의 차남이었지만 권력의 비정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도는 미실로 하여금 사륜과 거래를 하게 하였다. 차기 왕으로 올림과 동시에 미실을 왕후로 삼을 것을... 일단 그 거래에 응한 사륜은 차기 왕으로 올랐다. 그가 제2대 진지왕이다. 3년 후의 일이지만 그는 왕위에 오른 후 미실과의 약속을 어겼고, 정사(政事)는 안 돌보고 정사(情事)만 하는 '항음무도' 한 왕으로 몰려 같은 무리들로 부터 폐위 당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사도왕후가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처럼 왕위에 정식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제위(帝位)에 있으면서 아들인 신왕(新王) 진지왕을 통제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연로한 거칠부를 상대등으로 삼은 점 또한 흥미롭다. 미실의 심복인 황종의 딸 윤궁이 미실과 세종 부부의 중매로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문노가 이끄는 화랑과 그의 신기(神技)와 같은 무예를 흠모하여 따르는 낭도들의 도움으로 579년 진지왕 폐위의 거사는 손쉽게 치루어졌다. 579년에 죽은 거칠부는 당시 7대 중반의 노구로 상대등에 오르긴 했지만 정사를 볼 수 없어서 대등인 노리부와 노동공 등이 외

정을 보았다. 삼국사기에는 세종 노리부 노동공이 같은 인물로 등장하지만, 화랑세기에서는 세종은 태종(이사부)과 지소(진흥왕의 모후)의 아들이고, 노리부는 박영실과 옥진의 아들로 등장한다.

이렇게 막강한 권세의 진지를 구축한 미실은 아들 하종도 급찬(9등급)으로 승급시켰다. 564년에 태어난 하종은 진흥왕이 죽을 당시에는 12세였고, 정식으로 화랑의 입문은 15세에 하였다. 그리고 24세 무렵인 588년에 풍월주가 되었다. 그는 미실의 도움으로 문무의 정수(精秀)를 배웠다. 역사는 토함공에게 배웠고, 노래는 이화공에게 배웠다. 또한 검술은 문노에게 배웠고, 춤은 미생공에게 배웠다. 모두가 당대 그 분야의 최고봉으로 명성을 날리던 화랑의 수장들이었다. 토함공은 사다함의 형으로 풍월주의 지질을 갖추고 있었지만 학문에 더 전념하였다. 이화공은 4세 풍월주를 역임했다. 격검술이 신기에 달했던 문노는 우리의 역사상 최고의 무예가로 기록되어 있다. 미실의 동생 미생은 춤과 미모(그는 늘 화장을 했다)로 무수한 첩을 두었고 자녀가 무려 100여명이 되어서 이름도 잘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summer

fenn



WHERE KIDS THRIVE

SUMMER FENN ONLINE REGISTRATION OPEN NOW



Online Registration Open NOW!

For more information; www.summerfenn.org

Summer Fenn is where you'll find kids unplugged, active and outdoors. It's a place where they are warmly welcomed each morning by familiar faces and new friends, and returned home with memories to cherish... A place where every child can try new things, make new connections, and feel valued just as they are.

Summer Fenn is where kids thrive.

Weekly Session dates:

- Week 1 (June 24-28)
- Week 2 (July 1-5, we are OPEN July 4th for a 1/2 day, no pm extended day)
- Week 3 (July 8-12)
- Week 4 (July 15-19)
- Week 5 (July 22-26)
- Week 6 (July 29- Aug 2)
- Week 7 (Aug 5-9)
- Week 8 (Aug 12-16, NO pm extended day on Friday)

BASE CAMP

\$665/Week (\$655 Pay By Check Discount)
 Senior Camp (7th-9th Grade, Includes Weekly Field Trip) \$680/Week (\$670 Pay By Check Discount)

SF JUNIOR

\$380/Week (9:30am-1:30pm, Lunch Included) (\$370 Pay By Check Discount)
 Full Day Option \$600/Week (\$590 Pay By Check)

SPECIALTY CAMPS

One-Week Specialty Camps- \$695 (\$685 Pay By Check)
 Two-Week Specialty Camps- \$1390 (\$1375 Pay By Check)
 Three-Week Musical Theatre Camp- \$2,250 (\$2,220 Pay By Check)
 Build Your Own Boat- \$795 (\$785 Pay By Check)
 Two-Week Build Your Own Sailboat- \$1600 (\$1585 Pay By Check)

SPORTS CAMPS

Gaga Ball, All Sports, Full Day Soccer- \$650 (\$640 Pay By Check)
 1/2 Day Soccer Skills Clinic W/NEFC Coaches \$350
 (Add Lunch + Afternoon Electives= \$700)

DAY TRIPPER CAMPS

Day Tripper Adventure- \$750 (\$740 Pay By Check)
 Day Tripper Codebreakers, Or Day Tripper Photo Op- \$725 (\$715 Pay By Check)

EXTENDED DAY

7:30AM-8:45AM - \$80/Week
 4:00PM-6:00PM - \$135/Week
 Both AM And PM- \$190/Week
 Drop-In Hourly Rate- \$17/Hour

SUMMER FENN
www.summerfenn.org

516 Monument St. Concord, MA 01742
 Phone: 978.318.3614, Fax: 978.318.3683, summercamp@fenn.org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병원'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콧물 등 그 원인은?

해마다 봄기울과 같은 환절기가 오면 이비인후과를 찾는 많은 수의 환자들이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번개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젖듯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알레르기비염은 어떤 질환일까?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네트워크 강남병원의 도움을 받아 알레르기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알레르기비염은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질병이며 전 인구의 10-25%에서 이환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비염을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유병률은 이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비록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질환은 아니지만 최근 환경오염, 공해의 증가 등에 따라 알레르기비염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근에는 알레르기 천식의 전구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학습능률과 작업 효율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 원인

알레르기비염을 유발하는 원인 항원으로는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바퀴벌레 따위의 곤충 부스러기 등과 같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음식물, 음식물 첨가제, 약물 등에 의해서도 알레르기비염이 유발될 수 있다.

2. 증상

증상으로는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고 동시에 맑은 콧물이 흐르며, 눈과 코의 가려움증과 코막힘 증상이 있다. 코막힘, 재채기, 수양성 비루, 가려움증을 알레르기비염의 4대증상이라 한다. 주 증상 중 코막힘이 가장 흔하여 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 콧물과 재채기 순이다. 코막힘 증상은 만성적이며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 밖에 눈물, 두통, 후각감퇴, 폐쇄성 비염 등의 증상이 있다

3. 치료

알레르기비염은 일단 발병하면 그 증상이 사춘기나 성인에 접어들면서 약 20%에서 자연소실되지만 평생 동안 지속되는 예가 많아서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알레르기비염의 치료는 가능한 원인 항원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환경요법과 약물요법, 면역요법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치료법은 항원의 침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알레르기비염의 원인 항원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항원에 대한 노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환경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하면 만족스러운 임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회피요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집먼지 진드기

- (1) 양탄자와 소파 등의 가구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 (2) 오래된 인형이나 베개, 침구류는 버리도록 한다. 또 베개와 침구류는 진드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플라스틱 커버로 씌운다.

(3) 침구류는 최소한 1-2주에 한번 이상 60도 이상의 온수로 세탁한다.

(4) 집안의 카펫이나 천으로 된 소파 등의 가구류는 모두 치운다. 만일 치우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 주기적으로 진드기 구충제를 뿌리는 방법을 고려한다.

(5) 집안의 습도를 낮춘다(상대습도 50%이하). 이를 위하여 되도록 가습기의 사용을 피하고 습한 계절에는 제습기를 사용하며 건조한 계절에는 자주 환기시킨다.

(6) 동물의 박제나 인형, 커튼 등은 되도록 모두 치운다.

(7) 공기청정기도 도움이 된다.

(8) 실내온도는 1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동물 털 및 비듬 : 애완동물을 집에서 기르지 않는다.

3) 바퀴벌레 : 독성 미끼나 덫을 이용해 잡는다.

4) 수목, 목초, 잡초, 꽃가루와 실외 곰팡이 :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외 알레르겐이 증가하는 계절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간다.

5) 실내 곰팡이 : 곰팡이의 성장과 연관된 모든 습기 찬 곳을 없애고 곰팡이가 있는 표면을 청소한다. 실내습도는 50%미만으로 줄인다.

6) 흡연 :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금연토록 권하며, 실내에서는 절대로 금연한다.

7) 자극성 기체 : 연통이 없는 석유난로나 난방기

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다른 자극제(방향제, 정화제, 스프레이)의 사용도 금한다.

약물요법으로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혈관수축제, 비만세포안정제, 항콜린제, 류코트리엔 조절제 등이 있다.

알레르기비염의 수술요법의 하나인 레이저치료법은 비강점막을 응고시켜 알레르기반응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비중격을 형성하는 연골이나 뼈가 휘어져서 코막힘 증세가 더욱 심하다면 비중격성형술을 하여 바로 교정할 수 있으며, 만성 비후성 비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비갑개절제술이나 비갑개성형술로 통기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알레르기비염과 동반된 비염이나 만성 부비동염이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시경 부비동 수술로 치료한다. 수술법은 주로 코막힘 증세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상의 재발이 흔하므로 수술 후에도 알레르기비염에 대한 적절한 예방이나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알레르기비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23) 은퇴플랜(직장)의 중요성

직장인이 일 년에 \$10,000을 투자하면 10년
 을 모아봤자 단순한 산수 계산으로 \$100,000이
 기에 투자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나 직장인
 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투자를 제대로 이용하면 세금을 절
 약하면서 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이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
 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직장인이 10% 수
 익률로 매년 \$10,000씩 투자하면 25년 후에는
 100만 불 그리고 5년을 더해서 30년 후에는 180
 만 불로 불어난다. 미래에 수익률이 10%가 된
 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주
 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받을 수 없고
 투자 돈이 복리로 증가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
 는 것이다. 직장 은퇴플랜에 투자하며 투자자
 가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

*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없다. 여
 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서너 번 옮긴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 은퇴플랜으로 \$20,000 투자했

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며 직장인이 많지 않
 은 돈이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이 돈을 꺼내서
 썼다고 가정하자. 나이가 59.5살 미만이고 세
 금율이 22%라고 가정하면 실제 내 수중에 돌
 아오는 액수는 \$14,000뿐이다. 세금과 10% 벌
 금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돈을 꺼내지 않
 고 은퇴플랜에서 8% 수익으로 그대로 두었다
 면 25년 후 \$137,000으로 불어나는 돈이다.

* 직장의 은퇴플랜에서 돈을 빌려(Loan)
 서 빚을 갚거나 집 사는데 혹은 아이들 학자
 금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직장인이 생각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을 꾸어서 자신에게 갚아 나가
 므로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직장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융자받은
 액수만큼 투자되어있지 않기에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투자 수익률과 복리효과 혜
 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자
 를 갚을 때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갚는다. 은
 퇴 후 401(k) 등에서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또 내
 야 한다. 세금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내는 것

이다.

*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의 제한이 있다. 제대
 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에 주식투자는
 물론 채권투자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은퇴플랜에서 선정된 종
 목과 은퇴플랜이 아닌 비슷한 투자종목을 비
 교할 때 수익률이 현저하게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회사의 HR이나 회사에 건의해서
 더 많은 투자종목을 요구할 수 있다.

* 은퇴플랜에서 주어진 투자종목의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은퇴플랜을 운용하는 금
 융회사는 당연히 본인 회사에 수익이 많이 돌
 아오는 방법으로 은퇴플랜을 형성하기 때문
 이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은퇴플랜은 회사
 가 부담하는 비용만 없다면 회사로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프랭클린 투자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회사는 최
 근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고소한
 이유는 직원들에게 제공한 은퇴플랜의 투자

종목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로 투
 자비용이 많고 수익률은 인덱스 펀드와 비교
 해서 떨어진다는 이유이다. 회사는 법정에 가
 면 이길 확률이 없음을 알고 최근 직원들과
 \$14 million으로 합의 (Franklin Templeton
 settles 401k lawsuit for \$14 million, Greg
 Lacurci, InvestmentNews, Feb. 20, 2019)를 보
 였다.

최근에 나온 월스트리트지에 의하면 직장
 인을 변호하는 법률회사가 은퇴플랜을 제공
 한 회사를 소송(잘못된 은퇴플랜을 형성한 회
 사)해서 회사에서 받은 액수가 2010년 이후
 무려 \$446 million (Law Firm wins \$55 million
 settlement in 401(k) fee suit, Anne Tergesen,
 WSJ, March 28, 2019) 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직장인이 큰 목돈(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
 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은퇴플랜이다. 직장
 은퇴플랜을 제대로 이용하여 직장인 누구나
 여유가 있고 풍성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暫 (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暫間)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 고린도후서 4:1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
 무기 사격시험을 지도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8일 “김정은 동지
 께서 4월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
 술유도 무기 사격시험을 참관하시고 지도했
 다” 며 “사격시험에서는 특수한 비행유도
 방식 등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유도 무
 기의 설계상 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됐다”
 고 전했다.

방송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이 무기체
 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며 “
 군수생산을 정상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을 최
 첨단 수준으로 계속 끌어오는데서 나서는
 단계적 목표·전략적 목표들을 제시했다”
 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최근 제14기 최
 고인민회의에서 집권 7기 권력을 재편한 뒤
 연일 군(軍) 관련 현지지도에 나서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核) 폐기 ‘빅딜’
 ’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저
 강도 군사시위에 나선 것이라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말 6차 핵실험과
 ICBM 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이후 추가 핵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비핵화 동결
 조치로 포장해 온 것. 그런 김정은이 비행훈
 련을 지도하고 신형 전술유도 무기 사격시험
 을 참관한 것은 다분히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

일각에선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이후 저장
 도 수준의 군사적 도발에 나서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신들도 김정은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 사
 격시험 참관에 민감한 반응.

뉴욕타임즈(NYT)는 김정은의 이번 신형
 무기 참관에 대해 “북한이 협상 판돈을 늘
 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
 분석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자기들에게 유
 리하지 않으면 한반도 긴장고조를 협상지렛
 대로 삼아왔다” 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전에 자신의 외교정책 구상이 무
 너질 수 있다고 우려할 것” 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재에 대한
 타협이 없을 경우 ‘대치 사이클’ 로 돌아

갈 수도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메시
 지” 라고 보도했었다.

MIT(미·매사추세츠공대) 핵확산전문가
 비핀 나랑 교수는 CNN과의 회견에서 “서
 해발사장을 재건하고 탄도미사일 시설들을
 계속 운영하며, 영변(핵시설 유지)으로 김정은
 은 ‘내 총에 총알이 들어있지만 아직은
 발사하지 않겠다’ 고 있는 듯하다” 고 평가
 했다.

영국 BBC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
 렬된 후 북한이 공개적인 무기시험을 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고

다음주로 예측되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길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행보로 읽힌다.

미국이 대북(對北) 제재 고수원칙을 지키
 고 있는 가운데 혈맹인 중국도 미·중(美·中)
 무역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우호로 러시아를
 선택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暫(잠): 쫄쫄야-마칠 잠. 이 잠자는 수
 례 거, 즉 굴러가는 자동차(車)에 斤: 權十六

兩: 근근-몸무게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
 내 몸을 하나님의 구원-즉 영혼과 육체를
 맡겨 처분” 하시라는 뜻.

“十六” 의 뜻은 십(십자가)의 사랑: 내
 생애가 십의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
 랑(十: 사랑)을 기준으로 나의 六(=肉) 즉 인
 (人)간인 ‘나’ 를 영(靈)과 육(肉)으로 분
 리: 八 해서 영원한 천국(天國) 하늘나라 식
 구(食口)로 삼아 달라는 뜻.

문제는 하늘 식구: 八로 나뉘어지기 전 人
 (사람)이 하늘 식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
 추기 위해 십사랑을 훈련하는 十家(십가=교
 회)훈련이 돼 있어야 “하늘식구(食口)” 로
 준비가 절대적(的)이란 뜻.

세상에서 백년 또는 천년을 살아도 천국
 식구로서 영생(永生)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잠시(暫時)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
 송부르다가... 열린 천국문(天國門) 내가 들
 어가 세상짐을 내려 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主)와 함께 다스리리.”

잊지 말 것은 잠이 永遠(영원)의 시작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 617.254.4654

				<p>보스톤코리아</p> <p>617.254.4654</p> <p>bostonkorean@hotmail.com</p>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전국 프랜차이즈 Subway 보스턴 남쪽, 연매상 \$395,000 매매가격:\$140,000 (\$7,500 - 한 번 내는 이전비 포함), 대학교 근처 훈련, 소유자 20+ 년 경영후 은퇴	보스턴 남서쪽, 내일 + 스킨 살롱: 연매상 \$250,000 + 온라인 화장품 세일 (\$400,000+)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풀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	보스턴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프레밍햄 지역: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급매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 연매상 \$265,000, 좋은 매매 가격 \$200,000 고급 동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낸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턴 북쪽 헤어살롱, 아주고급동네 연매상 \$80,000 좋은 렌트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5월 1일부터 Tbo Plus 상품의 가격이 \$14.99에서 **\$24.99**로 인상됩니다.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서둘러 가입하세요!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전상품 무약정



\$34⁹⁹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